



신이서

이 달의 표지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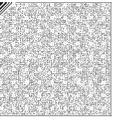
국민대 디자인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재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카데미 10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Sensibility of water〉, 2018년 〈Sensibility of water 2nd; 形〉 등 두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갤러리엘르 신진작가 공모전 〈제6회 미래를 보다展〉(2018), 공예기획초대전 〈工藝 禮讚—공예 예찬〉(2016) 등 다수의 그룹전 및 공예페어에 참가했다.

물의 유기적인 형태는 많은 조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처음 물이라는 소재로 작업을 시작한 이유는 정해져 있지 않은 가변적인 형태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의 물성이 인간의 내면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강가에 흐르는 물, 거친 파도, 산에서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수 등 물은 외부 환경에 따라 형태를 달리한다. 이런 물의 형태는 날씨, 장소, 소리 등 외부 자극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람의 감성과 닮았다. 나의 첫 번째 전시 주제인 '물의 감성'은 물의 물성과 사람의 감성을 연관 지어 시각화한 것이다.

두 번째 개인전인 〈Sensibility of water 2nd; 形〉에서는 물을 받치고 있는 지형의 모양과 물의 형태가 같기에 물과 지형을 나누지 않고 형태의 폭을 좀 더 확장해나갔다. 물에 의해 반복적으로 깎이고 쌓여 지형이 변화하듯 사람들의 내면도 자극에 의해 깎이고 쌓인다. 내면이 형성되는 과정을 물에 의한 침식작용에 빗대어 표현했다.

내가 생각하는 물은 그저 H₂O가 아니라 모든 것을 연결하는 유기체이다.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으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과거의 내 기억과 맞물려 또 하나의 감정을 만들어낸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의 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들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이다. 나의 작업 주제인 물의 감성은 우리 내면의 모습이자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1



2

표지 작품

〈形01〉 Ceramics & Resin | 800×620×120mm | 2018

—

1 〈Erosion〉 Ceramics | 120×120×180mm | 2018

2 〈W.sound〉 Ceramics | 130×95×130mm | 2016

3 〈W.flowing1〉 Ceramics | 340×310×100mm | 2016



3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신이서

테마 토크

그 시절의 서울로, 타임슬립

06 칼럼

서울을 그리며

08 리포트

서울의 역사를 담은 '백년가게'

12 현장 스케치

서울문학기행 '백석의 나와 나타사와 흰 당나귀'

사람과 사람

- 16 문화인 작가 권지안
- 22 작가의 방 최민선 안무가·서민준 작가·
김민호 사진작가·오재형 피아니스트
- 26 진실 혹은 대담 신당창작아카데미 10주년 대담
- 32 예술가의 밥그릇 패브릭 피규어 작가 박선주
-
- 34 서울 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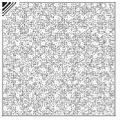
16

42



이슈 & 토픽

- 36 쟁점 1 공연 유료 생중계를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들
- 38 쟁점 2 감정(鑑定)과 감정(感情) 대립
- 40 쟁점 3 문단 내 대필 관행
- 42 화제 1 2019 서울출자랑 네트워크 댄스파티
- 44 화제 2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 발표



48



공간, 공감

- 46 공간 1 용산공원 갤러리
- 48 공간 2 <빈집프로젝트 BE-IN HOUSE>
- 50 공감 1 참여놀이극 <돌, 돌? 돌>과 인형극 <루루섬의 비밀>
- 52 공감 2 전시 <척추를 더듬는 떨림>과 <타이틀 매치: 김홍석 vs. 서현석, 미완의 폐허>
- 54 공감 3 책 <사하맨션>과 <진이, 지니>
-
- 56 예술적 상담소

SOUL OF SEOUL

- 58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듬다 ㉠
위무(慰撫)의 등대를 찾아 보문동으로 갔다
- 60 고재열의 설(說)
'보이콧 재팬' 운동과 일본 여행의 대안 찾기
- 62 서울 건축 읽기
서소문역사공원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 64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WEBZINE +

- 68 웹진 [비유] <두 개의 목소리>
- 70 웹진 [연극in] 하우스 어서와 유니폼
- 72 웹진 [춤:in] 살아 있음에 가슴이 뛰는, 발레리노 김용걸

62



- 74 8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84 편집 후기

오름
시립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중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전주호, 씨네21(주)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디자인·사진 씨네21(주), 조현우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http://magazine.sfac.or.kr
발행일 2019년 7월 31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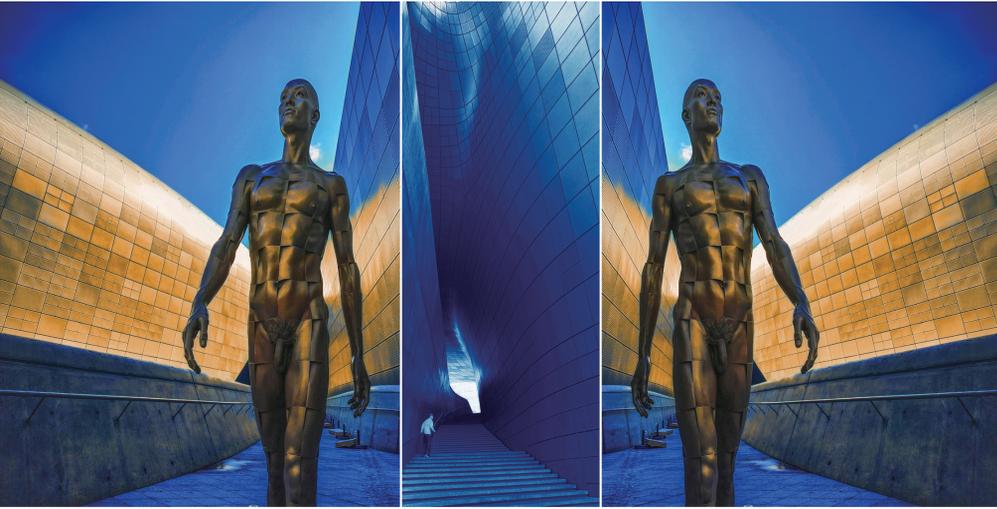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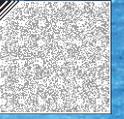
그 시절의 서울로,



김완기(KIM WAN KI), <바람부는 언덕>, 상암동, 1968.



안장현(AHN JANG HEON), 천호동, 1968.



설인선(SUL IN SUN), <가고 오고>, DDP,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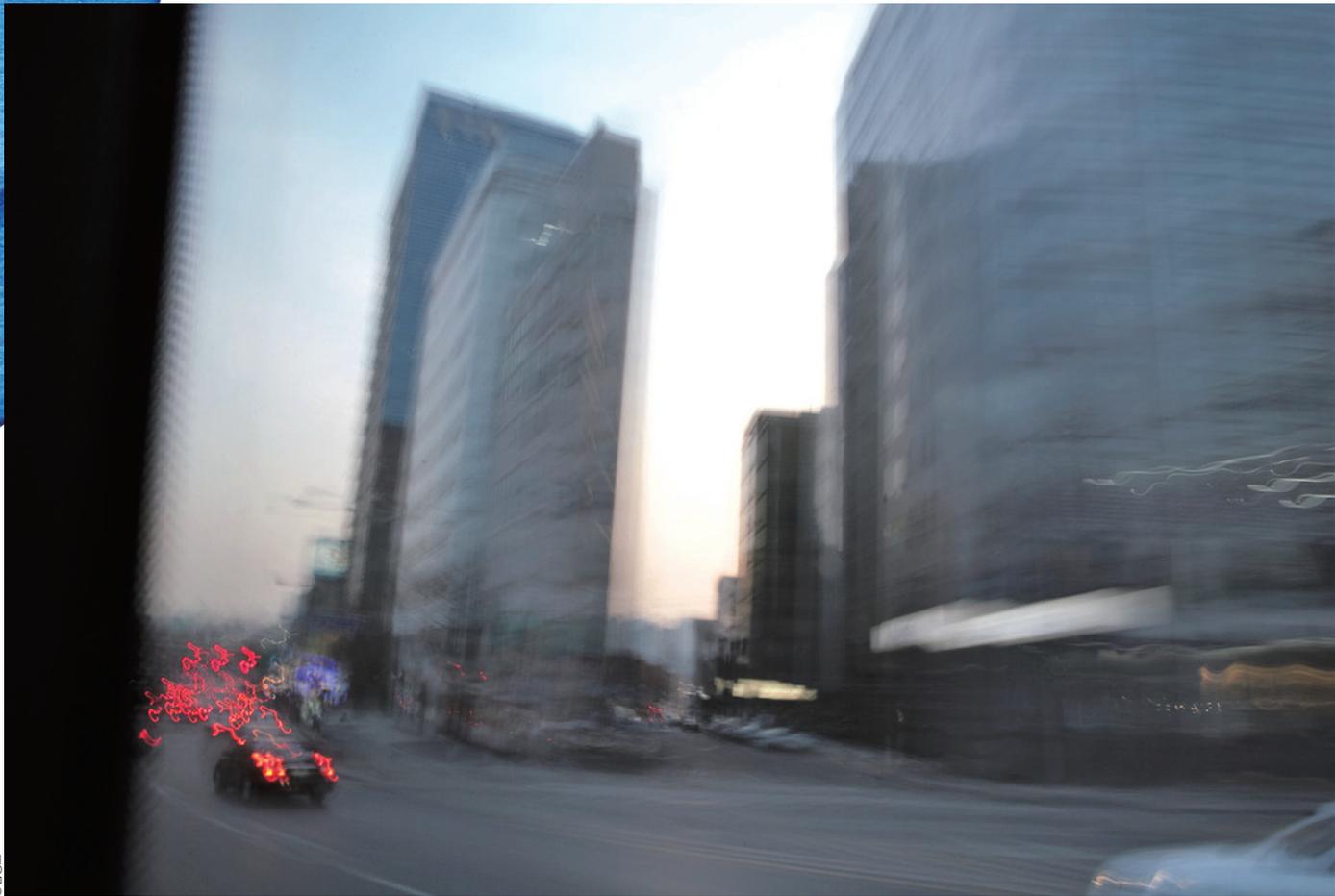
타임슬립

도시는 나라의 역사를 간직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생과 추억을 품는다. 기나긴 시간 동안 매일의 변화가 쌓여 명칭이 바뀌기도 하고 모습이 바뀌기도 한다. 서울은 고난과 수난의 시대를 겪고 부흥과 발전의 시대를 지나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으며, 부침의 세월 속에서도 늘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와 문화예술의 중심에 있었다. 8월호 '테마 토크'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서울의 옛 모습을 들여다본다. 도시 구석구석 어딘가에 남아 있고 숨어 있는 서울의 옛 모습을 더듬으며 한여름 밤의 꿈같은 타임슬립 여행을 떠나보자.

사진 제공 대한사진예술가협회



권병준(KWON BYOUNG JUN), 신림동 도림천, 2015.



©김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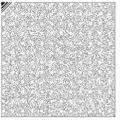
서울을 그리며

서효인 시인의 10년 전 서울

서울의 모습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기억된다.
올해로 10년째 서울 살이를 하고 있는 서효인 시인의
기억 속에는 길으로는 야박하고 통명스러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뜨거움이 깃든 골목의 풍경이 남아
있다. 처음 일을 찾아 서울로 올라왔던 2009년의 서울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2009년의 초입, 어머니는 벌써 두 달을 넘게 산 은평구 불광동 셋
집에 찾아와 잣게 흘쩍이더니 끝내 평평 울었다. ‘삼천에 삼십’ 하는
반지하 투룸이었는데, 어머니로서는 그런 주거 공간은 낯선 인생에
처음이었다. 스물아홉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에는 나는 이런 짧
은 시도 썼었다.

젖은 박스를 검정 고무줄로 정리하는 노인의 자박자박하는 소리가
있어 나는 휘발유처럼 조심스럽게 도로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간
다. 거기에서,
_ ‘불광동’ (〈여수〉, 2017)



거기에서 2년을 살았고 다른 동네에서 또 2년을 살았다. 계약기간에 맞춰 잘도 착실하게 살았더니 서울에서 10년이다. 이제는 반 지하에 살지도 않고 심지어 아파트에 산다. 물론 경기도 아파트지만.

불광동에서 어디로

불광동 빌라는 한창 공사 중이던 은평뉴타운 초입 언덕에 붙어 있었다. 한쪽에서 보면 1층이요 다른 쪽에서 보면 지하 같은 곳이였다. 그해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정말로 사람들은 휘발유 같은 화를 다스리며 찬찬히 내리막길을 걸어 연신내역에 닿았다. 새벽에 길을 나서면 전봇대나 가로수 같은, 기대어 서 있을 만한 것들에는 여지없이 쓰레기봉투가 조심성 없게 쌓여 있었다. 거기에서 새어나온 액체도 사람들 못지않게 조심조심 비탈길을 흘러갔다. 그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다. 나도 그랬다.

이제 막 서울 생활을 시작하려는 참이어서 많이도 긴장했었다. 전철을 기다릴 때면 괜히 노선 지도 앞으로 가서 서울의 복잡하고 다난한 지리를 살폈다.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될 텐데, 환승역은 외워둬야 할 것 같아서 그들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합정, 공덕, 종로3가, 충무로... 같은 것들을 외우면서 걸었다. 합정에서 당산으로 넘어가는 2호선의 차창 밖은 아름다웠다. 불광동의 휘발유와는 다른 정취가 있어 한결 시원했으나, 전철은 빠르게 강의 끝에서 끝으로 사람들을 옮겼다. 그들은 모두 무표정했다.

날이 풀리고 얼마 있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때 광화문광장이란 데에 처음 갔던 것 같다. 수많은 버스가 앞차의 뒤꽂무니에 바짝 붙어 길을 가로막았다. 옛된 얼굴의 경찰들이 헬멧을 벗고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나는 또다시 조심스럽게 올었다. 무엇이 슬픈지 알 수 없어 더욱 슬픈 상태가 되어 광화문 아스팔트를 쿵쿵 밟아보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울음소리가 잦아들 즈음 연신내역으로 돌아가야 했다. 연서시장에 들러 간이 텅 된 반찬을

사고, 원손에 김정 비닐봉지를 든 채 오르막에 접어들면 골목 어귀에서 김정 고무줄로 박스와 종이를 묶는 노인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저녁이면 그들은 좀처럼 말이 없었다. 비에 젖어 글자가 다 지워진 신문지가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죽음, 이제 막 대통령이 된 사람의 미소 같은 것을 애써 내보이고 있었다.

출근은 합정역 근처로 했다. 상수역 근처의 저렴한 술집에서 친구들을 자주 만났다. 그곳에 가면 어쩐지 흥성흥성한 기분이 들어서 얼굴에 홍조가 돌고 어깨도 으쓱거리고 걸음걸이는 어슬렁어슬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막차를 놓치지 않고 불광동에 돌아와야만 했다. 불과해진 채로 연신내역에서 내리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아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묘하게 느리게 움직였다. 한참을 조는 듯 서서 기다려 지상에 올랐는데, 집에 도착하면 다시 지하로 내려가야 하니 그랬을까. 옆집은 반 지하 투룸으로 아이가 둘이었다. 남자에 들어 있었는데, 녀석들은 지금 대학생이 되었을 텐데 어디에서 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의 나처럼 상수역이나 합정역으로 가끔 나와 없는 품도 잡고 그럴 것 같다. 그랬으면 좋겠다.

거기가 어디든 얼마나 외롭든, 아직도 서울

내가 흘러간 거기는 어디일까. 지금은 경기도민이 되었지만 많은 경기도 사람들이 그렇듯 날마다 서울로 나온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며 경기 북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열 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를 넘고 넘어 서울의 일터로 나온다. 처음 일을 찾아 서울에 왔을 때가 2009년이니 이제 10년을 꼬박 채웠다.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생겼고 어머니는 울지 않는다.

제2자유로를 빠져나와 강변북로로 합류할 때에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너머를 보며, 불광동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신호가 너무 짧아 단상이라 할 것도 없는 이미지만 남는다. 가까이 보였던 북한산, 공사 중이던 아파트들, 함부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그사이를 비집고 다니던 고양이들, 박스를 줍던 노인들, 입을 굳게 다물던 젊은이들. 나는 거기에서 어디로 왔을까. 어디로 가는 걸까. 거기가 어디든 얼마나 외롭든, 아직도 서울이다. 야박하고 통명스러워 보이는 길목의 풍경 속에 깃든 삶의 뜨거움을 보지 못했다면, 내 서울 생활도 헛된 것이었겠지. 그게 아니라 다행이다. 서울 덕분에 나는 삶의 차양 안으로 조심스럽게 흘러오기에 성공한 것만 같다.

글 서효인 시인

소중한 것은 시간을 넘어 이어진다

서울의 역사를 담은 '백년가게'

도시는 매일같이 변화한다. 사람이 나고 죽듯이
어느 가게가 문을 닫으면, 어디선가 또 다른 가게가
신장개업을 알린다. 도시 생태계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잘 눈치채지 못한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변화의 윤곽이 의식된다.

서울 마포구 만리동 고갯길에 자리한 한겨레신문사 사옥 앞에는 '육교식당'이라는 백반집이 있었다. 육교 밑에 있는 이름 없는 동네식당이었는데 새로 이사 온 한겨레신문사 직원들이 육교식당으로 부르면서 진짜 육교식당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20년쯤 세월이 흘러 도시정비사업으로 육교가 철거되고 육교식당만 남았다. 새로 입사한 사원들은 육교식당이라는 이름을 보고 육교의 존재를 짐작했다. 또 세월이 흘러 몇 년 뒤 육교식당이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10여층짜리 오피스빌딩이 들어섰다. 처음 그 이름을 불러주었던 이들은 정년퇴직을 하기 시작했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육교식당을 알리가 없다. 동네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 존재는 흐릿해져간다. 그렇게 사라져간 것이 어디 한둘인가. 지난 반세기,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달려온 초고속 도시 서울에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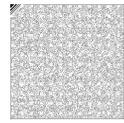
필자는 얼마 전 <서울백년가게>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오래된 가게들을 다룬 책을 냈다. 몇 쇠를 찍고, 우수도서로 뽑히는 등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이 꼭 제목이 그럴듯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6.25 전후 복구를 기점으로 서울이란 도시가 재건의 삼을 뜬 지 60여년을 훌쩍 넘긴 지금, 국민소득 3만 달러로 선진국 문턱에까지 이르렀다는 요즘, 사람들은 비로소 사라져간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그 긴 시간의 풍상을 버텨내고 우리 곁에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몇 년 전부터 서울의 역사 깊은 상점이나 생활시설을 '서울미려유산'으로 지정해 '살아 있는 문화재'로서 대접하고 널리 알리고 있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런 흐름이 미약하다면, <서울백년가게>와 같은 책이 출판의 기회를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도시와 상점은 불가분의 관계다. 지금도 상점이 즐비한 종로는 본래 왕조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시전거리였다. 종로 시전거리는 조선 태종 때 그 틀이 짜여졌다. 1,360칸 이상의 점포를 지어 상인들에게 세금을 받고 '분양'했다. 만약 우리나라가 식민지와 6.25 전쟁을 겪지 않았다면, 종로 시전거리는 아마도 일본 교토의 기온 거리처럼 왕조시대의 전통상점거리로 보존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듯이, 서울에서 왕조시대의 상점은 사라진 지 오래다. 종로 시전거리의 뒷골목이었던 피맛골도 2009년 도시정비로 사실상 사라지고 이름으로만 남게 된 게 현실이다. 이처럼 서울에서 오래된 가게의 역사는 1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기 힘들다. 1904년 문을 열었다고 알려진 설렁탕 집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을 정도다.

서울시의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37곳의 가게와 생활문화시설을 살펴볼 수 있다. 그 가게들을 소개하는 글을 찬찬히 읽다 보면, 지난 100년의 서울의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서울의 오래된 가게, 이름하여 '백년가게'의 역사를 살펴다 보면 서울이 지나온 한국 현대사의 편린을 만날 수 있다. 현대화, 산업화, 서구화 같은 코드가 가게의 시공간을 이룬다. 그런 가게들을 몇 군데 소개해본다.

왕조에서 근대의 도시로

개화기의 근대적인 상점들은 상당수가 일본인에 의해 개업됐다. 이들 상점 중 일부는 해방과 함께 한국인이 그 명맥을 이었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 가게 중 하나가 인사동의 구하산방(1920년대 개업, 이하 괄호 안은 개업 연도)이다. 1920년대 초 일본인이 문을 연 유명한 지필묵 가게이자 골동품 상점이었다.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 가게에 점원으로 들어간 가난한 소년이 일본인 주인에게 전문지식을 배워 유명한 골동품 상인이 되고, 해방 후 가게도 넘겨받아 오늘날의 인사동 지필묵 가게로 이어져온 과정은 우리나라가 겪어온 지난 100년의 근대사를 응축하고 있는 듯하다. 낙원동의 낙원약기상가(1970)도 그 바탕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망국의 역사와 마주친다. 낙원동은 왕실악대가 있던 곳. 조선왕조가 망하면서 악대는 뿔뿔이 흩어져 민간 속에서 악사로, 교습소로 명맥을 이었고 그것이 피아노거리(지금의 탑골공원 주변 아케이드에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상점이 있었다)와 1980년대 밤무대 악사들의 인력시장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악기전문상가가 되었다. 서구음악의 본고장이라는 런던이나 뉴욕에도 없는 대규모 악기전문상가가 어찌서 서울 한복판에 존재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는 곳이다.

본토 콤플렉스에서 토착화로

많은 전통이 단절되고,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문화도 직접적인 검증이 어려웠던 '못살고 폐쇄된' 시절에는 '원조'와 '본토'가 행세를 했다. 너도나도 원조, 본토라는 간판을 놓고 경쟁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시청 옆 을지로 입구의 라칸티나(1966)는 진짜 서양음식을 맛보기 어려운 시절에 생긴 최초의 전문적인 이태리식당이라고 할 수 있다. 맛으로 말하면 한국화된 파스타의 선구격이다. 라칸티나의 스파게티는 중국 산동성의 자작면이 한국에 와서 자장면이 되었듯이 어쩌면 이미 서울 사람들의 서울 음식이 되었는지 모른다.

남영동의 부대고기 집 황해(1973)는 또 어떤가. 전쟁이 낳은 대표적인 혼종음식이 부대고기와 부대찌개다. 전쟁이 없고 미군부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음식이다. 미군기지와 가까운 남영동에 한때 수십 곳의 부대고기 집이 성업했다. 미군부대에서 '빼낸' 냉동육과 햄, 소시지 같은 귀한 가공육을 철판에 굽는 음식으로 '한때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빼고 다 와서 먹었고', '미군도, 일본 관광객도 미치게 좋아했다'는 가장 한국적인 고깃집이다.



이태원의 재즈클럽 올댓재즈(1976)도 기억해야 한다. 1975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시카고>가 대히트를 한 이듬해, 그 주제곡 <올 댓 재즈>를 클럽 이름으로 내걸고 발 빠르게 등장한 한국 재즈의 산실이다. 처음에는 당연히 미군 또는 외국인 전용이었지만, 40여 년이 흐른 지금은 주말이면 내외국인 할 것 없이 젊은이들로 가득하다.

분단이 낳고, 강남이 키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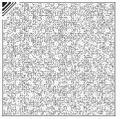
북한 땅에 원류를 두면서 남한에서 독자적으로 남한 음식화에 성공한 것이 냉면이다. 서울의 유명 냉면 집이 저마다 이북과의 연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그런 집은 드물다. 주방의 출신이 맛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을밀대(1976)의 1대 주인 고(故) 김인주는 부모가 평안도 사람이지만 경북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평양냉면을 배웠다. 을밀대의 냉면은 대구 음식인가? 평양 음식인가? 필자에게 을밀대의 냉면은 서울 음식이다. 오장동의 함흥냉면(1954)은 함경도 사람들이 즐겨 먹던 농마국수가 1.4후퇴 이후 서울에 정착한 함경도 사람에 의해 비빔냉면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함흥에는 함흥냉면이 없다는 말은 그런 점에서 사실이다.

고급 국수를 대중화시킨 안동국시는 또 어떤가. 안동국시의 출생지는 본적지 안동이 아니라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이다. 국수 문화가 발달한 대구 출신의 한 여성이 1980년대에 서울 압구정동에 소뼈(사골)로 육수를 내는 국숫집을 차리고 내건 이름이 안동국시(1985, 현재 소호정의 전신)였다. 강남에 사는 성공한 경상도 사람들이 즐겨 찾으면서 일약 유명해졌지만, 고급 국수를 즐길 수 있는 중산층의 형성이 이 음식을 빠르게 대중화시켰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서울은 그 안에 평양도 들어오고, 함흥도 들어오고, 안동도 들어와 제각기 뿌리를 내리고 또 얽히면서 만들어진 '이민자들의 도시'다.

소수 엘리트문화에서 대중문화로

이렇다 할 젊은이들의 문화가 없던 1970년대 이전에는 대학생이 청년문화를 대표했다. 그 흔적은 오래된 카페에 남아 있다. 대학로 학림다방(1956)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다방으로 인정받는다. 서울 문리대가 있던 시절에 학림다방은 술한 문학과 예술, 인문학의 아





지트였다. 대학이 옮겨간 뒤 연극의 중심지가 되면서 점차 엘리트 문화에서 드라마, 가요와 얽힌 대중문화의 흐름 속으로 편입되어갔다. 신촌 연대 앞의 원두커피 집 미네르바(1975)는 지금도 생소한 사이폰커피라는 독특한 방식의 커피로 취향이 분명한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변화무쌍했던 신촌거리에서 이 조그만 카페가 죽지 않고 이토록 오래도록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안국동의 브람스(1985)도 마찬가지다. 30여 년 이상 안국동로터리 한쪽 모퉁이의 2층을 지키고 있는 이 '길모퉁이 찻집'은 다방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도 오가며 눈길에 담을 정도로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 옛 '인사동 시대'의 유적이다.

개발에서 재생으로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보통의 생각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이익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개발만능주의가 낡은 폐단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재생을 또 다른 방식의 진보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갤러리와 게스트하우스 등을 겸한 서촌의 복합문화공간 보안여관

(1942)은 1930년대 문을 연 여관을 헐지 않고 갤러리로 활용하는 특이한 방식의 재생을 시도했다. 문화적 안목이 높은 한 개인의 투자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도시재생에 관한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반면에 세실극장(1976)은 폐관 위기에 놓인 민간극장을 공공이 개입해 되살린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민의 힘으로 파괴를 면하고 역사를 이어가게 된 가게도 있다. 신촌의 홍익문고(1957)는 재건축사업으로 헐릴 뻔했지만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변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졌다. 한때는 서울의 3대 약속 장소로 손꼽힐 만큼 많은 서울시민들의 추억이 묻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다시 백년가게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 홍익문고, 보안여관, 세실극장 등은 시민과 정부, 각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게 하는 사례들이다. 홍익문고가 창업 60주년을 기념해 내건 표어는 이 서점 뿐 아니라 많은 백년가게들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기도 했다. “소중한 것은 시간을 넘어 이어진다.”

글 이인우_한겨레 선임기자. 쓴 책으로 서울의 오래된 가게들을 취재해 소개한 <서울백년가게>(2019), 공자의 삶과 <논어>의 내용을 소설 형식으로 소개한 <삶의 절벽에서 만난 스승, 공자>(2016) 등이 있다.

일러스트 김경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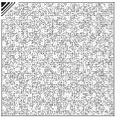


나타샤를 찾아서, 목소리를 찾아서

서울문학기행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나타샤, 나타샤...' 시 쓰는 가난한 청년이 애달게 부른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누구일까. "오늘날까지 정체가 분분하죠. 백석 시인을 평생 사랑했던 자야 여사는 '나타샤는 나!'라며 강한 확신을 가졌는데요, 후자들은 백석이 20대에 짝사랑한 이화여고보생 박경련이 '나타샤'라고 말합니다." 7월 3일 오후 1시께 성북구 성북동 길상사에서 백석을 연구해온 박미산 시인이 말했다. 법정 스님에게 길상사(옛 대원각)를 보시했던 자야의 공덕비가 놓인 마당에서였다. 웅기중기 모인 40여 명의 시민들은 쑥덕거렸다. "자야 여사님이 땅 속에서 다 들겠네!"





- 1 서울문학기행을 위해
평화의 소녀상 앞에 모인 사람들.
- 2 성북예술창작터.
- 3 최순우옛집.



‘반골 기질이 만든 동네’ 성북동 문학기행

이른 아침이었다. 배낭을 멘 사람들이 4호선 한성대입구역 근처 평화의 소녀상 앞으로 모여들었다. (사)도시문화연구원이 진행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서울문학기행’ 네 번째 모임인 ‘백석의 나와 나 타사와 흰 당나귀’ 편을 찾은 이들이었다. ‘눈은 폭폭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사는 나를 사랑하고/ 어테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양응양 울을 것이다. 눈 대신 땀이 뻘뻘 나는 현장이었다. 시민들은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쉽지 않은 기회거든요. 서울에 살면서 서울을 잘 모르는 데다, 혼자 하기 어려운 문학기행을 그 분야 전문가들의 해설을 들으며 할 수 있으니 좋잖아요. 경쟁률도 엄청 높아요. 저는 벌써 세 번째 참가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회사를 휴직한 참에 의욕을 가지고 서울 여행을 해보겠다는 한 참가자가 말했다.

길마다 집이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도보여행은 ‘집’에서 ‘집’으로 이어졌다. 공간만 거슬러 올라도 문학사 인물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동네가 성북동이다. 박미산 시인은 성북동에서 45년을 살았다. 박 시인은 성북동을 “반골 기질이 만든 동네”라고 했다. 문인을 포함해 저항의식과 민족주의 정신이 또렷한 예술가들이 일찍부터 이 동네에 터를 잡았다는 뜻이다.

성북동 문학기행의 출발점인 ‘성북예술창작터’(성북로 23)는 지역 내 다양한 실험예술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선 후기의 화가 오원장 승업(1843~1897)이 붓을 휘둘렀던 곳이다. 틀에 얽매이길 싫어했던 기인의 활동 무대를 지나 골목 어귀로 들어서면 잘생긴 소나무가 중정을 지키는 ‘최순우옛집’(성북로15길 9)이 손님들을 맞는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이자 미술사학자였던 해곡 최순우(1916~1984)가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를 집필한 한옥이다. 맑은 바람에 감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뒷마당, 사랑방 문 위에 붙어 있는 ‘오수당’(午睡堂: 낮잠 자는 방)이라는 현판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씩 붙잡는다.

큰 길로 나서면 대리석과 나무 조형물로 남아 있는 ‘조지훈 집터’(성북동 142-1)를 볼 수 있다. <승무>, <낙화> 등의 시를 남긴 조지훈 시인(1920~1968)과 더불어 청록파 시인들을 떠올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걸어서 10~15분 거리에 ‘상허 이태준 옛집’으로 알려진 ‘수



연산방(성북로26길 8)이 나타난다. “운문엔 정지용, 산문엔 이태준”이라 했다. 문장가로 이름을 알린 작가의 시대와 행간을 읽고, 다시 언덕과 좁은 골목길을 따라 성실하게 오르면 시인이자 승려,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1879~1944)의 옛집인 ‘심우장’(성북로29길 24)에 도착한다. 만해가 만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난 집이다. “집이 북향입니다. 남향으로 지으면 조선총독부가 보인다고, 아예 등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만해의 고집과 지독했던 우리 민족들을 떠올려보세요.” ‘심우’(尋牛)는 ‘자기의 본성인 소를 찾는다’는 선종의 수행에서 유래한 말이다. 제각각 성찰의 시간을 보내던 중 참가자 이현진 씨는 “서울에 40년 가까이 살았지만 성북동을 제대로 보긴 처음이다. 지켜야 할 유산이 많다”라고 말했다.

‘눈을 번쩍 뜨고’ 백석과 자아의 목소리를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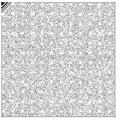
이처럼 근대작가들의 흔적만 좇아도 두어 시간이 훌쩍 지난다. 구불구불한 옛 골목도 그대로 살아 있으니, 문학기행이란 척박한 일상에 문기를 끌어올려 촉촉한 바탕을 만드는 여행이자 작가의 혼을 부르는 의식처럼 여겨진다. 고(故) 김윤식 문학평론가는 문학기행 산문집 〈환각을 찾아서〉에서 “문학기행”은 땅울림과 흡사한 ‘제4의

목소리’를 찾아 듣는 일과 마찬가지로라며 “제4의 목소리란 내가 찾아낸 것이며 따라서 내 몫인 까닭입니다. 남이 창작해놓은 작품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고안해낸 장치가 내게 있어 문학기행이기에 이는 나만의 영역이며 따라서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제 목소리를 찾아가는 여행에 대한 독려인지. 때 맞춰 성북동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북선잠박물관’(성북로 96) 앞에 마련된 무대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인 어연경 명창이 소리를 뽑아낸 것. “얼씨구나 절씨구.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보니. 황설궁궐이 웬 일이며.” 절정에서 고수 조풍류 씨가 북채를 휘둘렀다. 박수가 쏟아졌다. 조선시대 ‘선잠단’(누에농사의 풍년을 비는 제단)이 자리했던 성북동에서 그 걸을 이어받은 21세기 공간이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녹음에 문헌 길상사는 백석과 자아의 젊은 날에 대한 얘기를 전했다. 권번 출신 여인이 시인을 만나 사랑을 하고, 죽는 날까지 가슴에 담았다. 1955년 요정 대원각을 인수한 자아는 1995년 법정 스님에게 대원각을 보시했는데, 약 2만 3,140m²(7,000평)의 부지는 당시 시가가 1,000억 원에 달했다는 말도 있다. ‘그깟 1,000억 원, 백석의 시 한 줄만 못하다’라는 여인의 단호한 목소리가 목탁 소리 저편에





2



3

- 1 수연산방.
- 2 성북선잠박물관 앞 무대에서 펼쳐진 어연경 명창의 공연.
- 3 길상사 자야 공덕비 앞에서 해설을 듣는 시민들.

서 들리는 듯하다.

평안북도 정주 출신의 '멋쟁이 시인'은 염문도 많았다. "백석 시인은 평생 한 여인을 짝사랑하고, 기생과 동거도 하고, 결혼도 여러 번 했죠. 해방공간의 마지막 작품이었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처럼 '고향과 '농촌'의 모습을 포착하거나 우리 문화를 시화하며 일제에 저항했던 작품 외에도, 여인과 사랑에 관한 시를 여럿 남겼습니다." '남면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한 <편지>(1936)나 '얼나훔 달을 업고 손방아만 짚는 내 사람을 생각한다'는 <통영-남행시초 2>(1936)처럼 말이다. 박미산 시인은 누하동에서 직접 운영하는 카페 '백석. 흰 당나귀'에 "얼마 전 문학탐사를 하는 정철훈이 <백석을 찾아서>를 내고 갑자기 찾아왔다"라며 "백석을 좇으며 가산을 다 쓰는 사람들이 터러 있는데 실로 고마운 여정 아닌가"라며 반가운 일화도 전했다.

역사가 '내 목소리 내는 사람'의 편에 선다고 가정한다면, 자야는 역사를 제 것으로 만들 만큼 목소리가 뚜렷했던 듯하다. 그이가 <내 사랑 백석>에 빼곡히 기록한 시인 백석은 분명 자야를 '흰 당나귀'에 태웠을 남자다. 나타샤가 누구인들 어떤가. 갑갑한 일제강점기 시대에 근대 서울, 문장으로 서울을 견딘 문학인들과 그들의 말글살이를 오롯이 이해한 이들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처럼 보인다. 백석의 시 한 수를 세상 그 무엇보다 으뜸으로 쳤던 자야의 유연도 영겁의 시간 동안 회자될 터였다. "한겨울 눈이 제일 많이 내린 날, 내 뺨가루를 길상사 마당에 뿌려주세요."

작품 속 사연 따라 '서울문학기행' 떠나볼까

지난 6월 12일에 시작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열리는 '서울문학기행'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문학작품의 배경이 된 서울 속 공간을 문학 전문가와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정주, 윤동주, 김수영, 백석 시인의 흔적을 연달아 훑었고, 무더위를 피해 한 달 쉬었다가 8월 31일부터 5번째 기행 '박태원의 천변풍경'을 시작한다. 매회 참고책자와 오디오가이드를 제공한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http://news.seoul.go.kr/culture>)에서 회차별로 받는다.

글 · 사진 전유안_칼럼니스트

미술로 '나'를 발견하다

작가 권지안

그에 대한 소개가 별도로 필요할까. 2006년 타이푼의 메인보컬로 데뷔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넘도록 전쟁 같은 연예계에서 버티고 있다. 그것도 정상을 유지한 채, 소개하려는 인터뷰이는 '슬비'. 하지만 본명은 따로 있다. 2012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음악과 미술을 결합한 '셀프 콜라베이션'을 통해 기존에 만나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로 세상에 충격을 던져줬다. 지금은 가수보다 화가로서의 삶을 꿈꾸고 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경기도 장흥으로 차를 몰고 갔다. 한적한 유원지가 있을 법한 아담한 길가에서 오두막집이 눈에 들어온다. 통나무로 지어진 건물은 언뜻 보기에 동화에 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다. 굳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입구에서부터 아티스트 냄새가 코를 찌른다. 표지판에 적힌 글자는 ‘빌라빌라 콜라’. 솔비의 작업실 이름이란다. 아니 권지안의 작업실이 맞겠지.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물으니 말괄량이 삐삐를 좋아해서란다. 삐삐네 집인 ‘빌라빌레콜라’에서 착안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곳에서는 마법이 이뤄질 거 같은 느낌이 든다.

내부로 들어가니, 그가 몇 년간 그려왔던 크고 작은 그림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바닥엔 최근까지 작업을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 물감과 재료들이 널브러져 있다. 정리가 안 된 모양새에서 작업하면서 느꼈을 고민이 전해진다. 그의 그림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술 작품들과 조금 다르다.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게다가 붓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대신 손을 이용하고 때로는 온몸을 캔버스에 던지기도 한다. 그의 최근 활동은 미술계에서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방송에서도 주목했고, 최근 경매에서 적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도 됐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일까. 세계적인 미술 축제에 초청받았다. 유럽 최대의 페스티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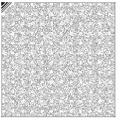
음악 하는 솔비와 미술 하는 권지안

음악에서 정상을 찍었는데, 미술로 전향했다. ‘전향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음악보다 미술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사동에서 막을 내린 개인전 〈Real Reality: 불편한 진실〉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했다. 작품은 추상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작가가 어떻게 느꼈을지 짐작하게 되는 작품. 그는 그림을 설명하면서 ‘치유’를 언급했다. 그에게 치유를 받아야 할 만큼의 아픔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그가 아픔을 고백했다. 2009년 온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동영상 사건. 한참이 지난 후 허위임이 드러났고, 동영상을 유포한 자는 체포됐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2년 동안 당사자는 죽지 못해 사는 심정이었으리라. 정상을 달리던 스타는 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입은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그에게 삶은 존재 이유마저 희미해졌다.

“2009년 어느 날 매니저가 동영상을 전해줬어요. 처음엔 가볍게 넘겼죠.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메시지를 통해서 퍼지더라고요. 제 의지랑 상관없이. 엄마는 물론 가족, 친구들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위 여부를 확인도 안 하고 기사가 터졌어요. 단정 짓는 것처럼 말이죠.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오해는 걷잡을 수 없이 퍼졌어요. 주변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어봤는데, ‘네가 나서면 더 확산되니까 나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동영상의 당사자에게도 피해가 갈까 봐 더 이상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 있다가 경찰에서 회사로 연락이 왔어요.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됐죠. 유포한 자들을 다 잡았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몰려온다. 당시엔 개인적인 일까지 불행이 겹쳤다. 심지어 집에 도둑이 들어서 다 털리기도 했다. 게다가 소속사가 바뀌는 시기였는데 새로 옮긴 곳마저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정신없이 지낸 2009년을 뒤로하니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5살부터 연예인을 꿈꾸며 살아왔고 연습생 시절을 거쳐 20대 초반에 그 꿈을 이뤘는데... 과연 이게 뭐냐?라는 좌절감을 느꼈다. ‘내가 생각한 꿈이 이게 맞냐?’라는 자괴감마저. 하루하루가 괴로웠다. 정신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불행은 그가 감당하기에 벅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당시의 정신적 충격은 심리 상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누군가 “심리치료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피아노를 비롯해 꽃꽂이, 기타 등으로 하루를 1분의 쉬는 시간도 없이 다 채웠다. 피아노를 가르치던 선생님께 물었다. 미술을 배우고 싶는데 그림 그리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냐고, 선생님의 친동생이 미술 선생님이라.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지체할 것도 없이 다음날 바로 소개받았다. 선생님은 그를 진심으로 대했다. 그에게 왜 이걸 배우고 싶은지 이유를 고백했다. 선생님은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거 같았다. 언젠가 책 한 권과 스케치북을 사가지고 왔다. 무언가를 건네주며 똑같이 그려보라고 시켰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틈 날 때마다 똑같이 그려보란다. 그런데 그와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힐링이었다. “세상에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을 거 같았는데 그는 내 편이었어요.” 인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선생님의 연애했던 시간과 결혼하는 순간도 지켜볼 정도로, 언젠가 데생이 지루해져 물감으로 그려보고 싶다고



경기도 장흥에 위치한 권지안 작가의 작업실인 '빌라빌라콜라'의 입구에는 퍼포먼스에 사용됐던 재료로 만든 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전했다. 선생님은 색을 쓰는 법을 알려줬다. 마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지 이끌어냈다.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야기를 글로 써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일기처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2010년 미술을 시작했고, 2015년엔 음악을 캔버스에 그리는 ‘셀프 컬래버레이션’ 시리즈를 선보였다. ‘음악 하는 솔비와 미술 하는 권지안의 만남’. 미술에 점점 빠지면서 권지안의 작업 세계가 궁금해졌다. 그는 한동안 미술에 몰입하면서 더 깊은 욕구를 쏟아냈다. 미술 서적도 뒤졌고, 미술사도 공부했다.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니 선생님은 일러스트를 알려줬다. 지금의 권지안을 만들어준 ‘추상’과 ‘현대미술’의 개념이 자리 잡히는 순간이다. 어느 날 영화계 사람들이 이 모이는 모임에 갔다가 현재 소속사 대표를 만났다. 당시 가나아트센터에서 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전문가였기에 그를 붙잡고 많은 것을 물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라붙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대하던 소속사 대표가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삶과 일치시킬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머니?”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고민했다. 삶이 뭘까? 어렵게 고민해서 그에게 건넸다. “어려서부터 무대에 서는 게 제 일이었어요.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요.” “그거 재미있겠네. 어떤 방식으로 해볼까?” 몇 번의 안무를 짜고 오랫동안 연습했다. 그동안 죽을힘을 다한 동작이 한 번의 무대로 사라지는 게 아쉬웠다. 그래서 이렇게 날려버릴 바에는 연습한 것을 캔버스에 흔적으로 남기자 다짐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의 작품들을 모아 전시를 열었다. SNS를 통해서 알려진 우리 사회의 불편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작품들이다. 그동안 그렸던 70여 점을 모았다. 시리즈는 <레드>(RED), <블루>(BLUE), <바이올렛>(VIOLET)으로 이어진다. 먼저 2017년에 선보인 <레드>부터 소개하자면, 이는 상처받는 여성의 삶을 대변한다. 아마도 그가 여성으로서 겪었던 수치와 상처에 관한 이야기인 듯싶다. 이듬해 선보인 <블루>는 계급사회와 사회계층 간의 불평등

“저에게 미술은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에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준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이 선물을 나누고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젠 제 개인의 치유만이 아니라 세상의 치유를 위해 미술을 하고 싶습니다.”

을 표현한다. 퍼포먼스엔 슈트가 등장하는데, 이는 자신의 계급을 높이고 싶은 현대인의 욕망을 드러낸 오브제다. 하지만 보이는 외적인 것이 정말로 중요한가를 되묻는다. 실제로 퍼포먼스에 사용된 노래 〈클라스 업〉의 가사엔 ‘meaningless’(의미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다. 시리즈를 마감하는 〈바이올렛〉은 아름답게 포장된 사랑의 이면이다. 이별의 흔적인 ‘멍’의 색깔을 나타내는 아픔. 결국 그가 받았던 상처를 표현한 것이다.

2017년 5월, KBS 〈뮤직뱅크〉에서 이 퍼포먼스를 라이브로 공개해 화제가 됐다. 원래는 가나아트센터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쇼케이스 작품이었는데 이것이 방송으로 발전한 것이다. 생방송 직전에 PD와 상의했는데, 지금껏 한 번도 선보인 적 없는 파격이 두려웠다. 하지만 PD는 그를 믿어줬다. 나중에는 타 방송사의 음악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왜 안 해주냐?”라는 볼멘소리까지 들었다. 생방송이 나간 후 큰 이슈가 됐다. 실시간 검색어의 상위권을 휩쓸었고, 방송 조회 수가 무려 30만을 넘기며 댓글도 넘쳐났다. “충격이다”, “왜 애들 보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하나?”라는 댓글도 있었다. 나중에 PD에게 괜찮은지 물으니 “정 안 되면 잘리지 뭐”라며 안심시켜줬다. 당시엔 그만큼 심각했다. 그러나 초반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반전됐다. 아이돌 후배도 “음악방송에 변화가 필요했는데 선배가 해줬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미술로 치유한 아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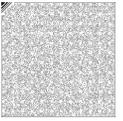
음악은 예명인 ‘솔비’로, 미술은 본명인 ‘권지안’으로 활동한다. 세상에 알려진 솔비를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권지안으로 새 출발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그냥 남들이 다 아는 솔비로 시작하면 편할 텐데. 필자의 의아함에 그는 솔비와 권지안을 이렇게 구분했다. “솔비는 ‘타의에 의해 만들어진 자아’였어요. 제 의견보다 회사 사장님의 의견이 컸고, PD들의 관점이 중요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져야 했다고 할까. 타인으로부터 만들어진 자아입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언제부터냐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죠. 솔비는 완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자극적이어서 했어요. 회사에서 짠 틀 안에서 제 역할을 한 인물이지요. 저는 솔비라는 캐릭터에 맞춰 충실하게 살아왔고, 지금은 권지안이라는 캐릭터에 충실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랑 가까운 배역을 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음악과 미술의 충돌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

른 장르의 결합이 쉽지 않은데 두 개의 자아를 하나로 합치는 게 녹록한 일은 아닐 테다. 두 장르 중 어느 것의 비중이 높을까. “미술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술을 하려면 음악이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악에서 정확하게 느낌이 오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음악을 만들 때 더 예민해져요.” 다시 미술 얘기로 돌아가서, 그가 작업하고 있는 ‘핑거 페인팅’이 궁금했다.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이용한다. “물감을 만지면 소리가 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극이 그림을 그리는 리듬이 되고요.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색이죠. 저는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그려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색을 보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는 활동하면서 늘 화제를 몰고 다녔다. 그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시청률을 보증한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PD들은 솔비를 캐스팅하려고 안달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지. 그만큼 악플도 태클을 거는 이들도 많았다. 작가로 활동하는 지금도 마찬가지. “유명세를 등에 업고 예술을 한다”,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게 실화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런 불편한 상황조차 그는 이렇게 받아넘겼다. “다른 연예인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미술과 반대편에서 활동했잖아요. 사람들은 저를 웃기는 사람으로 기억해요. 어떤 이는 ‘뇌순녀’(뇌가 순수한 여자)라고도 해요. (웃음) 가벼운 존재로 기억하는 거죠. 하지만 누가 가벼운 사람의 작품을 소장하고 싶겠어요? 작품을 거래하는 분은 솔비는 제로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다른 작가보다 제 작업을 소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작품을 단지 연예인이기 때문에 소장한다고 보진 않아요. 사람과의 교감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지난 6월 12일 발매한 디지털 싱글 음반 〈하이퍼리즘 바이올렛〉(Hyperism Violet)과 인사동에서 막을 내린 전시 〈Real Reality; 불편한 진실〉의 공통점은 ‘아픔’이다. 그동안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 그가 받았던 상처가 치유됐는지 궁금했다. “당연하죠. 선물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선물이라 느낄 만큼 이 마음이 소중한데요. 과거의 저처럼 힘든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 자체로도 치유가 됐다고 생각해요. 주관적 자아에서 객관적 자아로 바뀔 게 아닐까요?” 작업실 한편에 놓인 메모장엔 작가 권지안



에 대한 소개가 적혀 있다. 전시장을 찾아온 관람객에게 자신의 작품을 소개한 글로 보이는데, 왜 미술에 발을 들여놓았는지를 기술했을 수 있는 말이다. “저에게 미술은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에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준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이 선물을 나누고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젠 제 개인의 치유만이 아니라 세상의 치유를 위해 미술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오는 10월 5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9 라 뉘 블랑쉬 파리>(La nuit blanche, 백야)에 전시 작가로 초대됐다. 인터뷰가 진행되기 며칠 전인 6월 24일, 전시 위원회로부터 최종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2002년부터 시작된 <라 뉘 블랑쉬 파리>는 매년 10월 첫 번째 주말, 단 하루 동안 파리가 미술관으로 바뀌는 축제이다. 매해 200만 명의 관객이 찾으며 회화,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파리에서 진행된 이후 브뤼셀, 시카고, 마드리드, 로마, 텔아비브, 몬트리올, 상파울로, 토론토, 리즈, 상하이로 이어진다. ‘현대미술의 장’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아트 축제이다. 여기서 그는 <바이올렛> 퍼포먼스와 전시 작품을 선보인다. 축제에 초대된 30명의 작가들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세계적인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는 소감을 물었다. “전 세계의 내로라하는 미술가 30명이 모이는 국제적인 축제잖아요. 경연은 아니지만 대표주자로 참여한다는 마음에요. 베스트 3 안에는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웃음)”

다름은 틀림이 아니기에

그는 가정과 아이들에 관심이 높다. 가정위탁 홍보대사로 활동했으며, 2017년에는 실종 아동을 찾는 ‘파인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했고, 6년째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개최한 ‘제1회 마음이 그리기 대회’에 일일 미술 교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유독 아이들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과 연결시켰다. “어렸을 때 느꼈던 외로움에 아직 묻혀 있는 거 같아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저희 집은 모든 것을 밀어줄 만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당시의 아픔을 가진 아이의 기억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면 최대한 아픔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죠. 그걸 스스로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이에게서 영감을 많이 받거든요.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상처는 트라우마로 남을 거예요.



여성의 상처를 주제로 한 <하이퍼리즘 레드>.

요. 제 소망은 좋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 2017년, 국내 유일 장애 예술가들의 창작 레지던시인 잠실창작스튜디오의 <프로젝트A>에 참여했다. 프로젝트의 ‘A’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able’을 뜻한다. 즉, 가능성이 있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멘티-멘토 결합 프로그램이다. 2년 전 아이들과 핑거 페인팅을 함께한 데 이어 지난 7월 27일 두 번째로 방문했다. 재밌었던 기억도 있고 정말 애들이 좋아서 다시 방문했다는 그는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서울문화재단에 고마움을 전했다. 약간 불편한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신의 역할은 단지 아이들이 바로바로 촉각을 느낄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라며, 그것이 좋아서 참여한다고 했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이처럼 재능이 있지만 100%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는 곳이다.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들도 역경을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인 듯하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특별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특별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꿈을 실현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진행하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사회가 실현될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해요.”

글 이규승_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사진 손홍주

'작가의 방'에서는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본 게시글은 한겨레신문의 <서울&&에 소개되는 '사람in예술'에 동시 게재됩니다.

시선 밖 대상을 통제하다?



최민선
안무가

최민선은 다원적 실험과 외부적 장치로 몸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최강 프로젝트'의 일원이다. 최민선과 강진안이 만든 이 단체는 국립현대무용단에서 무용수로 활동한 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댄스컬렉션에서 안무상(2015), 요코하마 댄스컬렉션 심사위원상(2018) 등을 받았다. 주요 경력으로는 <여집합 집집집 합집여>(아르코소극장, 2016), <설다_익숙하지 않은 날>(서울무용센터, 2017), <Complement_안쪽과 바깥쪽>(경기도미술관, 2018)이 있다.

“시선에서 벗어난 대상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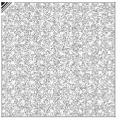
몸의 움직임으로 끊임없이 다원적 실험을 시도하는 기획팀 '최강 프로젝트'의 최민선(사진 오른쪽) 안무가는 6월 14~16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개된 <여집합_강하게 사라지기>에서 이렇게 물었다. 이 공연은 국립현대무용단이 국내 안무가들의 창작 레퍼토리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한 '스텝업'에서 개발됐다. 초연작만 올렸는데, 아르코소극장에서 선보였던 <여집합 집집집 합집여>(2016)의 다음 버전이다.

<여집합_강하게 사라지기>는 5분씩 이어지는 단편 네 편을 반복한다. 처음 5분은 두 무용수가 시계 추처럼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5분 후에는 원본에서 파생된 또 다른 5분의 동작이 이어진다. 이렇게 이전 버전에서 변형된 세 번의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으로 공연은 완성된다.

그런데 두 무용수가 무대 위에서 춤출 때 뒤로는 영상이 보인다. 이 영상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이 아니라 '5분 전' 영상이다. 무심코 보면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관객은 마치 '다른 그림 찾기' 같은 게임을 보는 느낌이 든다.

이런 '다른 그림 찾기'를 통해 그는 영상과 다른 '무대의 불예측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한다. “영상은 모든 동작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러나 무대 위에선 그렇게 못해요. 나머지를 뜻하는 여집합은 영상과 다르게 무대에서 통제받지 못하는 불예측성을 뜻합니다. 조금씩 변화를 통해 사라져가는 움직임까지 제어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의 완성작을 위해 무대 뒤 연습실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동작을 시도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담'이다.



고전에 빠진 젊은 작가



서민준
작가

서민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에 재학 중이며, 작가와 연출가로 활동 중이다. 2014년 신작희곡페스티벌에서 〈For sale〉로 등단했으며, 2018년에는 〈목적지수〉로 제8회 벽산희곡상을 받았다. 주요 작품으로 젊은연극제 〈For sale〉(2015), 두산아트랩 〈중이인간〉(2018)이 있다.

“셰익스피어 같은 말놀이를 써보고 싶다.”

희곡 작가 서민준은 6월 26일~7월 7일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된 〈목적지수〉(사진)를 집필하면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한다. 춘추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연극은 지난해 제8회 벽산희곡상에서 상을 받은 그의 희곡에서 출발한다. 그의 희곡은 동양 고전에서 출발한다. 주로 ‘동시대성’에 관심을 갖는 또래 작가들과 다르게 그가 옛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나오죠. 이런 뿌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최고의 정점에서는 그리스 신화나 동양 고전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념 덕분에 어릴 적부터 〈삼국지〉에 빠져 살았단다. 벽산희곡상 공모 때는 마감 직전까지 탈고를 거듭할 정도로 평소의 관심사를 녹여냈다고 고백했다.

‘목적(목자)의 묘수’라고 해석되는 〈목적지수〉는 초나라와 송나라 간의 모의 전쟁을 이야기한다. 목자는 송나라를 공격하려는 초나라에 모의 전쟁을 해보자고 제안한다. 결국 목자의 제안에 초혜왕이 손을 들어준다. 작품은 ‘전쟁의 유희성’을 보여준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놀이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루덴스처럼. 작가는 “전쟁과 유희를 완벽하게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이런 에피소드가 잘 드러나도록 구상했다”고 한다. 2015년 중국 조사 때의 원전 고증에서 출발한 그는 셰익스피어와 동양적 말놀이의 절충이라는 목표만 보고 달렸단다. 그런 흔적은 공연 중간에 튀어나오는 ‘의고체’(옛날 말투)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아무도 30대 초반의 작가가 썼다고는 안 믿겠죠?”라며 이 또한 자신이 노린 것이라 웃으며 말했다. 이런 특징은 “젊은 신진 작가의 작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의고체는 동시대가 가지지 못했던 탁월한 시야를 보여준다”라고 한 공모작 선정평에서도 뒷받침된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카프카의 〈변신〉이나 햄릿의 복수극을 토대로 동양적 말놀이를 구상하는 작품을 만들 겁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옛것에 대한 관심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자신했다.

흐릿함 속의 다양성



김민호
사진작가

김민호는 홍익대와 동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으며, 현재는 사진과 회화를 한다. <시점_연속된 시간의 지점들>(2014), <적_積>(2015), <접촉하는 시선들>(2018) 등 열 번의 개인전을 열었고, 국내외에서 다수의 단체전을 열었다.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2014), Sovereign Asian Art Prize Finalist(2017, 2019), 광주화루 우수상(2018) 수상 등의 경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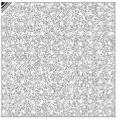
“제 작품이 약간은 모호하고 흐릿하게 보이지 않나요?”

동양화를 전공한 김민호 사진작가는 7월 16일까지 종로구 소격동 갤러리 조선에서 열린 전시 <모뉴먼트>(Monument)에 대해 이렇게 물었다. <브란덴부르크문>(사진) 등 출품작 15점을 꼼꼼히 살펴보면 도수가 안 맞는 안경을 쓰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사물이 겹쳐 보인다. 작품들이 하나같이 선명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그것이 자신만의 작업 비법이라 했다.

“대상을 하나의 피사체로 담은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이동하며 찍은 100여 장의 이미지를 겹쳐 쌓은 레이어(찰나적 이미지)들의 모음입니다.” 이는 대상을 선정한 후 공간을 이동하면서 찍은 횡적 인 이미지들과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종적인 이미지들을 작업 안에 쌓는 방식이다.

작가는 흐릿한 작품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이런 방식은 ‘추모하는 조형물’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그는 재작년부터 전시를 위해서 방문한 ‘베를린’과 ‘광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도시의 공통점은 가슴속에 품은 ‘전쟁의 상흔’이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아픔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대상을 바라보면, 누군가는 전쟁의 아픔이 가슴 저미게 다가오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관광지로만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대상일지라도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제각각인 것처럼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렇게 시작한 방식은 그림으로 그렸던 전작 <접촉하는 시선들>에서도 비슷하다. 당시 출품한 <세월>은 목포항으로 건져 올린 배를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해 덧입힌 작품이란다. 이 방식은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감성을 끌어낼 수 있는데 관객 중심의 감상법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을 기억하는 방식에 획일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양성에서 스스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마감, 새로운 시작



오재형 피아니스트

오재형은 상명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개인전 <nature portrait>(2011), <마이너스 8.5의 감성>(2011), <코스모스>(2013), <블라인드 필름>(2016), <안녕>(2019)을 열었다. 수필집 <년, 생생한 거짓말이야>(2019)를 발간했으며, 단편영화 <당어리>(2016), <모스크바 닭도리탕>(2019)을 제작했다.

“저를 예술 잡상인이라 불러주세요.”

7월 15일 동승동 예술가의집에서 <오재형의 비디오 리사이틀>을 연 피아니스트 오재형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예술 잡상인? 그가 걸어왔던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아주 엉뚱한 대답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그는 개인전도 여러 번 열 정도로 화가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한편 지난 3월 홍대에서 열린 인디 다큐페스티벌에서는 자신이 찍은 단편영화 <모스크바 닭도리탕>을 상영했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공황장애 경험을 고백한 에세이집까지 출간했다. 이렇게 화가, 영화 감독, 작가의 타이틀을 가진 그이지만, 지난 2월 화가 ‘은퇴전’을 한 뒤 ‘피아니스트’의 길을 새로 걷기 시작한 것이다. “어려서부터 화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 저를 발견했어요. 잠시 멈추는 것보단 이제 끝을 맺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면에 음악에 대한 미련이 커졌단다. 대학에서 그림 수업을 받을 때도 머릿속에서 피아노를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었다. 첫 단독 콘서트를 앞둔 상황에서 현재의 심정을 묻자 살면서 이렇게 두려운 적은 없었다고 털어냈다. 이번 콘서트의 계기는 ‘700회가 넘는 콘서트를 열었던 박창수 피아니스트의 제안’이었다. “제가 SNS에 올린, 피아노 치는 영상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 일반인치고는 느낌이 있대요. (웃음) 영상과 함께하는 피아노의 느낌이 독특하대요.” 1시간 남짓의 콘서트에서 자신이 제작한 8편의 단편영화도 상영했다. 여기엔 클래식을 비롯해 작곡가에게 의뢰받은 곡, 자작곡들도 포함됐다. 그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콘서트에 인생을 걸었어요”라며 앞으로의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미술, 영화계에서 피아노를 쳤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여긴(예술가의집) 손열음과 조성진이 섰던 무대입니다.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 이제야 제 직업을 찾은 것 같습니다.”

글 이규승_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신당창작아케이드의 ‘비약적 도약’을 위해

신당창작아케이드 10주년 대담

일시 2019년 7월 2일(화) 오후 2~4시

장소 신당창작아케이드 커뮤니티룸

모데레이터

오화진(신당창작아케이드 10주년 기획전시 전시감독, 전 2~8기 입주작가)

패널

김종휘(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금기숙(전 홍익대 섬유미술패션디자인학과 교수, 현 유금와당박물관장)

라도삼(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 실장,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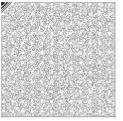
안강은(기획자, 현 이레코레 대표)

신혜정(전 4~5기 입주작가, 현 성신여대 금속공예과 교수)

류종대(현 9~10기 입주작가)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서울중앙시장 신당지하쇼핑센터에 자리 잡은 공예 전문 창작공간으로, 지난 2009년 개관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아 1기부터 현 10기까지 13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기획전시 <Quantum Leap: 비약적 도약>을 연다. 전시를 준비하며 신당창작아케이드의 과거 10년을 돌아보고 미래 방향성에 대한 담론을 만들기 위해 대담 시간을 가졌다. 신당 창작아케이드가 현재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공예 분야 레지던시로서의 성과와 장단점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구상까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오 화 진 먼저 신당창작아케이드에 대한 이미지를 여쭙보려고 합니다. 신당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지요. 안 강 은 신당창작아케이드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실체를 알게 된 지는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시장을 통해 들어오는 입구부터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저는 이것을 장점으로 특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입주작가의 분야나 경력이 다양한 것도 장점이고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나 서울디자인재단과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갖고 프로모션을 하고 유통도 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초점을 제대로 맞춰서 적절한 전문가와 함께 내부적으로 잘 풀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슈가 될 만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금기속 신당에 처음 와봤을 때는 낯설지만 신선했고 생동감이 느껴졌고요. 젊은 작가들에게 공간을 준 것 자체가 좋았어요. 다만 시장에 가면 공예적이고 예술적인 상품이 많을 거라 예상했죠. 여기에서 생산하는 작품이나 공예품은 사람들의 의식주와 연결돼요. 섬유가 패션과 연결되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것처럼, 그릇은 테이블에서 쓰임새가 있어야 해요. 이런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의하면서 발전해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유통되고 돈이 들어와야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작품은 멋있는데 제자들을 보면 항상 배가 고프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작가들이 들어와 성장하는 곳이라면 유통과 판매가 이뤄지는 공간이 밖에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10년이 되고 나니 무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강 은 시장이라는 플랫폼은 좋지만 상인과 창작아케이드 간에는 이질감이 있어요. 상생해서 맞물려가는 게 보이지 않는 점이 가장 아쉽고요.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 SNS용 포토존이 될 만한 공간의 비주얼부터 신경 써야 할지, 작가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구조로 가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금기속 제품을 유통할 제2의 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띄워준다면, 작가들은 지하에서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화 진 류종대, 신혜정 작가님은 신당에 들어오기 전에 신당이 어떤 이미지였고, 입주 후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신당의 이미지와 최근 이미지는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류종대 저는 석사과정 동기 중에 8기 입주작가가 있어서 실제 환경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정보를 들었어요. 일본에서 레지던시를 하고

들어왔던 시점이라 개인 작업실보다는 레지던시에 도전해보고 싶었고요. 알아보니 매년 38개 팀이 입주하고 목공, 섬유, 도자, 금속, 기타 등 모든 장르를 다루는 공예 분야 종합 레지던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타 장르 작가들에게 영향을 받고 경쟁도 하고 기회가 되어 협업도 하면 작가 활동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중앙시장 맞은편에서 자취를 했는데, 그때는 시장 안에 들어올 일이 없었습니다. 10년 후 시장 내부에 들어와 상인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갤러리 밖의 세상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출퇴근길의 환경 자체가 주는 생경함이 작업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지하에 있고 공간이 좁다 보니 목공 작업에는 제약이 많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은 장점 같습니다.

신혜정 저는 미국에서 8년 동안 생활하다 귀국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신당을 알게 되어 지원했습니다. 이 공간을 직접 둘러보니 흥미로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곳이 있을까요. 특히 제 방은 훗집 바로 옆이어서 매운탕 냄새를 맡으면서 작업했어요. 모든 상황이 절박했던 시기라 감사하게 생각하며 있었고요. 신당동은 종로, 동대문과 인접해 재료 구입에 쓰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작가 활동을 하다 보면 소속감이 없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걱정에 기분이 다운될 때가 많은데, 이곳에 있는 40여명의 작가가 하나의 공동체 같다는 느낌도 좋았어요. 4기, 5기 동기들과는 아직까지 연락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또 다른 모교 같아요. 돌아보면 신당을 통해 참여하고 활동했던 경력은 저를 엄청나게 프로모션해주었어요. 밖에서 볼 때는 신당이라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자체가 새로운 느낌이었는데요. 이제는 유사한 창작스튜디오들이 생기자 보니 신당만의 색깔을 나타낼 때가 되었어요. 그것은 장소 제공뿐 아니라 공예의 큰 미래를 기획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오 화 진 라도삼 박사님은 신당창작아케이드 조성 당시 핵심 인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로 그림을 그렸고, 10년 후에 그 취지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도삼 이 공간을 처음 기획한 때가 2007년 즈음인데요. 당시 '아트인시티'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작품과 지역을 결합하는 방식이 아닌 작가와 지역을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더불어 당시 나타난 현상이 또 하나 있었는데, 시장에 관



심이 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전성시 사업 등이 그것인데, 컬처 노믹스라 불리는 창의문화도시를 계획하면서 이 두 요소를 담기 위해 게이즈헤드의 발틱현대미술관에서 사용한 '아트 팩토리'란 개념을 갖고 왔어요. 성수, 금천, 문래 같은 낙후된 지역에 예술가들이 들어 지역을 바꾸고 그 과정을 통해 작가들도 스스로 발전하는 콘셉트였지요. 장르별 창작스튜디오는 별도였고요.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개념은 창작공간이란 개념으로 통합되었지요. 신당창작아케이드에는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욕망과 공예 작가를 이용해 마켓을 만들겠다는 욕망이 있었어요. 신당에서 공예 장르를 하면 작품을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죠. 실제 초기에 마켓도 열었지만 성과는 좋지 않았어요. 공간을 운영하면서 작가마다 붙어서 작품을 상품화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했어요. 저희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혁신을 탐구할 수 있는 공동 창업을 꿈꿨는데, 현실은 작가들의 개인 작업공간 형태가 되면서 이해 간극이 넓어졌죠.

지역사회와 이 공간은 여전히 이질적으로 느껴져요. 적절한지도 의문이고요. 아마 신당창작아케이드가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전업 작가들의 작업공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역혁신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이냐. 지금 현재 작가들의 작업공간으로 쓰고 있다면, 전과감하게 작가의 공간으로 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작가들이 작업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지요. 1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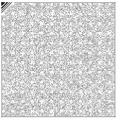
다. 적어도 '비약적 도약'을 만들려면 그러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금기속 첫 번째 의도가 좋았지만 실패는 아니고 방향이 전환된 것 같아요. 이제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도삼 당시 저희가 지역사회 개입을 중심에 두었다면, 재단에서는 장르별 작가들의 공간 요구를 우선시켰어요. 서울시는 마켓과 시민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욕망이 있었지요. 이 세 가지 욕망이 겹친 게 창작공간 같아요. 때문에 성과 목표로 '시민들이 얼마나 오는가?', '얼마나 판매되는가?' 등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현실적으로 적합한 지표가 아닙니다. 10년이 지났으면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10년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독특하지만 열악한 환경

오 화 진 이번에는 물리적인 환경 문제를 토로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작품 운송부터 힘들어요. 주차 문제가 있어서 상인들이 드문 새벽이나 밤에 해야 하고요. 작품의 크기도 신당에 맞춰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가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횃집 옆에 있었는데 섬유 작업을 하다 보니 전시장에 가면 작품에서 비린내가 났어요. 작업공간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화진, 김중휘, 금기숙, 라도삼, 안강은, 신혜정, 류종대(왼쪽부터).

신혜정 공예는 사실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는 긴 복도식인데 공동 작업장이 한쪽 끝에 있어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2년 동안 있으면서 반대편 방 작가들은 얼굴도 몰랐어요. 크게 4개 정도의 섹션으로 구분되고 섹션별 작가들만 교류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흥미롭고 독특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열악한 공간이지요.

류종대 저는 나무와 친환경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아트퍼니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횃집 쪽은 습도가 높아서 작업하기가 조심스럽고요. 경사로에서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재료와 작품을 운반할 때 주의를 요합니다. 스튜디오 내부는 계단식이라 공간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고요. 세상에 완벽한 레지던시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능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작가들이 좀 더 작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화진 외부에서 투어를 올 때 공예 레지던시라고 체감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비주얼 문제도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초기 입주작가들은 신당을 경력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죠.

류종대 중앙시장 정문(지하철 방향) 쪽에는 주정차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시도하면 시장 상인들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고요. 반대편의 후문 근처에서 주정차를 하고 작품을 운반하는데, 큰 작품을 옮기거나 작품 수가 많은 개인전 운반의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간에는 상인들이 인도와 도로를 점거해서 더욱 어렵고요. 야간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도삼 '아케이드'라는 이름을 쓴 것은 아마도 여기가 시장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창작공간보다는 다양한 공예제품이 전시되고 유통되는 장터 개념을 상상한 거죠. 그런데 실제 운영은 작업공간으로 했어요. 때문에 창작공간으로서 이 공간이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해요. 공간 자체가 원래 창작공간으로 상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창작공간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다시 설계해봐야 해요. 지역사회에 맞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화진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신당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어떤 상황이 연상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중휘 10여 년 전부터 재단이 운영해온 여러 창작공간들은 각각의 콘셉트가 있습니다. 그중 문래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는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명분을 걸 만들었습니다. 당시 서울에 스튜디오나 레지던시가 부족한 상황이었구요.

지금 와서 보면 금천구, 영등포구, 중구가 가장 핫한 도시재생지역이 되었어요. 이것은 10여 년에 걸친 인프라의 변화입니다. 거버넌스로 보면 3개 공간 모두 최초 콘셉트는 좋았지만, 사회의 주민과 만날 준비가 덜 되어서 진척되지 못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으로

보면 금천은 주거를 포함한 작업공간을 1년 동안 폐쇄적으로 보장 해주기 때문에 작가들 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문래는 다원예술인데 각종 지원금을 주고, 호스텔은 숙소로 씁니다. 신당은 숙소가 없고 노출형입니다. 2개의 공간에 비하면 단위면적당 편익 측면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사회적 수요 차원에서는 10여 년 전의 콘셉트를 계승하되 사회의 달라진 당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콘셉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당은 10기에 걸쳐 형성된 스토리를 공유하는 작가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으로서는 10년이 지나면서 공간 자체의 리뉴얼이나 이전에 대한 필요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신당은 서울시 소유에 서울시설공단이 운영주체이고 재단에서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구청에서 중구 내의 이전을 제안했는데 공간이 마땅치 않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의 콘셉트와 프로모션 등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한 후 재오픈하자고 제안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당의 10년 기반에 대한 논의와 제안의 배경과 비전을 정리하고 이에 합당한 공간을 찾는 방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10여 년에 걸쳐 창작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재단에 쌓이다 보니 꼭예처럼 여러 개의 접시를 동시에 돌리고 있습니다. 각각 돌리는 것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창작공간 2개를 합치면 재단 직원들이 본연의 기획 업무를 하면서 돌리꾸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외부의 전문적인 마케팅, 프로모션 등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 재단 내부의 수요도 3개의 창작공간에 같이 걸려 있고요. 그중 신당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보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중입니다.

오 화진 대표님 말씀과 연결해서 레지던시의 역할에 대해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공간을 확장하거나 이전하든 신당의 역할에 대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혜정 얘기를 나누면서 이곳을 기획했던 서울문화재단의 활용 의도와 입주한 작가들의 비전이 너무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재단 측에서 일상적인 생활용품 생산 수준의 공예 레지던시를 추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원도 해보고 심사도 해봤지만 수준이 굉장한 작가들이 와요. 기획한 팀과 실제 입주한 작가 사이에 공예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일차적으로 있고요. 이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최고 수준의 공예를 지원해주셨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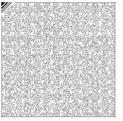
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해외 아트페어에 작가를 보내주거나, 진출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수준 높은 공예 시장을 두드려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오 화진 금기숙 교수님은 패션을 전공했지만 기법 자체는 공예적이 고요. 작가로서 파인 아트 성향도 강한데요. 작가와 교육자의 입장에서 공예계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안강은 선생님은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이야기해주었으면 합니다.

금기숙 우리나라는 무언가를 기획하고 관리할 때 끝까지 보살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스스로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데요. 그 사람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사람은 성공합니다. 관리자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은 작가들이 작업하고 실험하는 공간으로 두고요. 예를 들어 '돈의문박물관마을'에 제2의 공간을 열어서 우수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시설이니 재단에서 입주작가들과 연계해보면 어떨까요. 해외 페어에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창작은 여기에서 하고 돈의문에서 판매하면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을 찾아올 겁니다. 신당 출신 작가 130명이 모여서 10주년 전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성과입니다. 10년 동안 배출한 작가 중 10%만 성공해도 대박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해서 10년까지 가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새로운 콘셉트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 다음 단계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라도삼 저는 공예와 이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기본 방향은 더 이상 창작공간이나 레지던시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작업자들의 공간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변했습니다. 대규모 시설을 짓는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작가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 공간은 리모델링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서울시 설공단 소유라 재단에서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합니다. 공예 작가들이 여기가 적절하다고 하면 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전략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는 공예박물관의 규모가 큰데 이곳을 생산과 전시와 유통의 공간으로 어떻게 써나갈지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고요. 신당은 지역 사회에 대한 고민을 풀어나가는 워크숍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설계자 입장과 실행자 입장에서 거리가 많이 생긴 사업이라 새로운 방법론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안강은 패션이 오트쿠튀르와 프레타포르테 라인으로 분리되듯이, 공예 작가들도 작품과 상품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작품성과 생계유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신당은 작가 간의 갭이 크기 때문에 프로모션과 매니지먼트를 분리해서 작가별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획자로서 저는 작가와 작품만 보고 시작하는데요. 패션, 공예, 디자인, 파인 아트를 다 섞어서 전시하다 보니 기업과도 연결되고 작가들끼리도 연결되고 생각지 못한 시너지 효과가 있었어요. 답답한 것은 영역, 분야, 소재, 기법을 국한하는 것입니다. 작가별, 분야별로 적절한 프로모터가 붙어서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 화 진 해외에 한국 작가들을 소개하면 반응이 어떤가요.

안강은 한국 작가들은 해외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판은 이미 벌어져 있으니 신당에서는 어떤 정체성과 명분과 콘셉트로 참여할지를 짜야 합니다.

오 화 진 저도 신당에서 좋은 기획자를 만나 좋은 전시를 하며 혜택을 받은 것에 고마움이 있는데요. 다양한 작가군과 기획자를 연결해주는 것이 레지던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입주작가 입장에서 좀 더 신경 써주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류종대 작가는 제 직업입니다. 기획자나 행정가들이 좋은 계획을 실행해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예인으로서 직업인들은 나름대로 시장의 수요와 흐름에 맞춰 공예 상품을 개발하고, 작품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해외 전시 등에도 전략을 세워 접근하고, 장르 간 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정책과 기획을 떠나 작가 활동은 저희의 직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 운반과 관련한 안전상의 문제는 대안 공간을 찾거나 혹은 기존 공간을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오 화 진 마지막으로 신당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기숙 행정하는 분들이나 작가들이나 각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은 10년, 20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는 행정을 하다가 안되면 바꾸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를 또 겪어야 해요.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하고 소통해서 처음의 콘셉트가 마지막까지 잘 이뤄지도록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김종휘 일관된 행정은 저도 바라지만 그렇게 해서 도리어 안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기획, 결정, 실행은 자치에 가깝게 가고 행정은 감당해야 할 두께를 얇게 만들어야 직원들이 공공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자기 성장이나 비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껏 해온 것이 어찌면 경직성 측면에서 일괄된 행정에 가깝습니다. 어디서 누구든 일을 하나 벌이면 그것을 다른 것과 연결하는 것이 제가 할 일 같습니다. A, B, C를 대비해놓고 무엇이 걸리면 실험해 보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공간을 어떻게 할지 말지를 포함하되 대체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지난 10년의 상황이 구약이라면 이제 신약이 필요하다는 안팎의 공감대를 잘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혜정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공간이에요. 작가 스스로 이런 공간의 소중함을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작가들끼리 움직여야 새로운 일도 생기는데요. 작가들은 어느 순간 이런 지원이 당연하다고 인식하며 조금만 소홀하면 불평하는 단계에 이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류종대 시장이라는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신당 소속 작가로 활동하는 데 있어 독특한 스토리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분명 장점입니다. 작가들은 공간에 대한 고마움도 이미 느끼면서 활동하는 것 같아요. 안전상의 문제만 보완되면 좀 더 좋은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라도삼 공예 분야의 발전 차원 문제와 이 공간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접쳤는데요, 아마도 이 두 논의는 분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는 공예 분야 내에서 논의해야겠지요. 작가들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를 위해선 지난 10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 이를 바탕으로 재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비약적 도약'이 이루어지겠지요.

안강은 저는 전시를 기획할 때 신당 소속 작가들을 프로모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좋은 작가들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 화 진 오늘 많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리 전민정_객원 편집위원 사진 서울문화재단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패브릭 피규어 작가 박선주

멋진 수염을 가진 '브로'(brother)와 귀여운 '보이'(boy)라는 뜻의 '브로보이', 먹을거리와 소품 등을 본떠 손으로 만드는 패브릭 피규어 브랜드다. 취미로 바느질 인형 작업을 시작해, 어느덧 브로보이의 1인 창작자로서 제품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박선주 작가가 바느질 작업의 매력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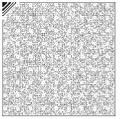
집중력과 섬세함을 요하는 작업

나는 원래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잠시 동안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했다. 그러다 입체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규어 클래스를 찾았다. 인기가 많은 수업이라 나름 경쟁이 치열해 쉽지 않았다. 재료도 큰 장벽이었다. 다루기 어려운 것도 많고 구입해야 하는 것도 많았다.

그러다 가장 편리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시도해보자는 생각에 간단한 바느질 도구와 자투리 천으로 피규어를 만들기 시작했다. 평소 단추 하나 못 달 정도로 바느질 실력이 형편없었던 터라 쉽지 않았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완성되었다. 떠올려보면 과정과 결과물

모두 흥이 나고 신났던 것 같다. 큰 성취감을 주는 바느질에 바로 매료되었다.

처음엔 긴 작업 시간에 비해 수량이 적게 나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지금도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때는 하루를 쏟아 부어도 몇 개의 결과물만 완성할 수 있었다. 때문에 큰 행사를 준비하거나 다른 브랜드와 협업이라도 하게 되면 체력적으로 큰 문제였다. 밤을 지새우고, 손목을 치료받으며 몇 번의 행사를 치르고 나니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수량이나 상품의 품질에 대한 압박은 조금 줄어들었다. 패턴, 재단, 밑작업, 포장까지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손바느질로 작업을 이어오다 1년



1-3 박선주 작가의
패브릭 피규어 작품들.

구매하는 피규어에서 만드는 피규어로

최근 몇 개월,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중국에서 대량으로 복제된 브로보이 모조품이 우리나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제보를 받은 것이다. 근원지를 파악하고, 도소매점에 일일이 연락을 취해 판매와 게시 중단을 요청하다 보니 허무하고 괴로운 나날들이 이어졌다. 주변에서는 브로보이의 제품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는 증거 아니냐며 위로했지만, 스트레스 탓에 몸살까지 앓았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왠지 더 기운이 났다. 폭넓은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내 작업과 브랜드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아직 정식 온라인 숍이 없는데 곧 판매처를 늘려 상품 게시에 힘을 쏟는 것은 물론, 작업 초기에 기획했던 DIY 키트 제작과 클래스도 이제 시작해보고 싶다.

전이나 페어 때마다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시각을 가진 관람객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런 만남을 통해 브로보이의 결과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한 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니즈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브로보이는 20~30대가 주로 관심을 보이지만, 아이를 위해 구매하는 부모님들도 많다. 아이가 좋아한다는 후기를 보면 정말 뿌듯하다. 브로보이는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함께해야 예쁜 수집 상품이라 핸드메이드라는 특성에 비해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개를 구매할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DIY 키트는 만들기 어렵지 않으니 가이드 영상을 보면서 직접 제작해보면 좋겠다. 태고 삼아 바느질 작업을 할 수 있고, 완성품은 놀이를 통해 성장할 아이에게 선물한다면 부모와 아이 모두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다.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다 재료를 구입하고, 처음으로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기분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 즐거움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요즘 가슴이 벅차다.

글 · 사진 제공 박선주_패브릭 피규어 작가

여 전부터 재봉틀로 밑작업을 시작하면서 체력 소모를 덜었다. 숨을 채워 넣는 작업이 가장 힘들고, 눈, 코, 입을 수놓는 작업을 제일 신경 써서 하고 있다. 별 차이 없다는 평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아주 약간만 틀어져도 표정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브로보이의 피규어는 티셔츠 등의 소매에 쓰이는 특수 원단을 사용한다. 바느질이 서툴러도 작업하기에 수월하고, 형태가 가장 잘 잡히는 원단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테스트해본 후 선택한 원단이다. 컬러와 부자재는 품목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모든 결과물에 같은 원단을 써 시리즈에 통일감을 부여한다. 또 양·음각의 스트라이프가 조금 더 풍부한 질감을 주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

태풍이 온다 해도
Welcome, Biryani Festival
오래된 서울
동대문신발상가 옥상은 천국이라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불어오는 환희의
바람이니 우리의 축제를
막을 수 없다네

※ 동대문옥상낙원(DRP:동대문 루프탑 파라다이스)은
예술가들이 버려진 동대문신발상가 옥상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글 · 사진 김영호_서울문화재단





새로운 시장과 팬덤 장사 사이

공연 유료 생중계를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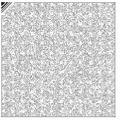
지난 6월 2일 열린 방탄소년단(BTS) 영국 콘서트는 장소가 세계적인 가수에게만 허락된 웹블리 스타디움이라는 것 외에도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콘서트 실황을 유료로 생중계해 화제를 모았다. 모바일과 컴퓨터로 접속해 3만 3,000원을 결제하면 현장에 가지 않고도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전 세계에서 14만 명이 몰려들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안방 1열에서

방탄소년단의 웹블리 스타디움 공연을 계기로 대중 가수들의 '콘서트 유료 생중계' 시장이 화두에 올랐다. 클래식 공연을 유료로 생중계한 지는 오래됐지만, 콘서트는 역사가 짧다. 그 출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2015년 올레TV가 윤도현 밴드의 콘서트를 9,900원에 유료로 생중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네이버는 2016년 8월 7일 B.A.P가 시작이다. 네이버는 같은 달 20일 빅뱅 콘서트에 이어, 2017년 1월 8일 빅뱅 앙코르 콘서트도 유료로 생중계했다. 방탄소년단 웹블리 공연 직후인 지난 6월 23일에는 팬미팅 〈BTS 다섯 번째 머스터 매직샵〉도 2만 2,000원을 받고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웹블리 공연으로 유료 생중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인지, 〈BTS 다섯 번째 머스터 매직샵〉은 올림픽공원 잔디밭에 영상 스크린을 설치해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함께 보도록 했다.

2010년대 초반 IPTV의 성장과 함께 시작된 클래식 유료 생중계 시장은 성공했다. 2015년 올레TV가 〈베를린 필하모닉 발트뷔네 콘서트〉를 유료로 생중계하는 등 활발하게 이어졌다. 네이버가 스마트폰 앱 V를 출시하면서 TV에서 모바일로 바람이 급속하게 불었다. 클래식 공연은 풋값이 비싸게는 수십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용 문제 등으로 고민하던 관객들에게 좋은 '차선택'이 됐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감상이 가능하니 생중계는 대중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듣는 음악'이라는 특성상, 눈 감고 조용히 귀 기울이면 안방 1열에서도 충분히 감상이 가능한 것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중 가수 콘서트는 '폐창' 문화 등 현장 관객 역시 공연을 만들어가는 요소라는 점에서 고개를 가웃하는 시선이 많았는데, 방탄소년단의 웹블리 콘서트가 46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DVD를 보는 것과 다름없는 영상을 돈을 내고 볼까 싶었는데 그 반응에 놀랐다"라고 말했다. 특히 유료 생중계로 공연을 보는 이들이 채팅에 참여해 감상을 공유하는 '쌍방향 소통'은 클래식보다 오히려 대중 가수 콘서트에 제격이었다. 방탄소년단의 웹블리 스타디움 콘서트를 실시간 생중계로 본 한 팬은 "표를 못 구한 팬들에게는 요긴하다.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로 공연의 열기를 만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튜브로 콘텐츠를 즐기는 게 익숙해지는 등 플랫폼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6월 23일 오후 방탄소년단 팬미팅의 네이버 생중계 장면. (프로그램 갈무리)

시장 논리가 아닌 '문화'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IPTV와 함께 시작된 생중계 시장은 차별화된 콘텐츠로 가입자를 늘리려는 목적이 강했다면, K콘서트 유료 생중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며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되고 있다. K콘텐츠가 세계의 중심이 된 데 따른 변화다. 몇 해 전 중국의 한 플랫폼은 한국의 인기 아이돌 콘서트 중계권을 5억 원에 사들여 중국 현지에서 50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얻은 적이 있다고 한다. 유료 생중계 시청자만을 위한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돈을 내고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특별한 콘텐츠를 즐기려는 이들을 위해 VR 기술을 고도화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콘서트 생중계를 위해 필요한 서버를 4배 이상 증설하는 등 유료 생중계 시장을 위한 기술력도 발전시키고 있다. (BTS 다섯 번째 머스터 매직샷)을 위해 메인 화면과 동서남북 캠 등 총 5개의 멀티뷰 라이브를 도입했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K팝 기획사들도 환영한다.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든 포털과 수익을 나누기 때문에 콘서트 비용 외에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획사도 생중계 업체도 윈윈할 수 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모바일과 노트북만 있다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기에, 해당 가수의 팬이 아니더라도 호기심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팬덤을 키울 수도 있다. 김학선 대중문화평론가는 “유튜브와 네이버 등에 익숙한 세대들이 만큼 콘서트 유료 중계는 더 활성화될 것이고, 더 다양한 형식의 수익사업과 프로모션 행사로 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특별한 경우'일 뿐, 일반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수익을 내려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특정 몇몇 가수에만 한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기획사들이 빚어놓은 K팝 콘텐츠로 포털 등이 팬덤 장사를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아이돌 기획사 관계자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K팝의 인기를 이용해 다른 곳에서 팬덤 장사로 돈을 버는 것이 불편하다. 포털이 하는 유료 생중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기획사가 자체적으로 유료 생중계 시장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 갖가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생중계 시장이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장사가 아니라 문화라는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글 남지은_한겨레 기자

감정(鑑定)과

감정(感情) 대립

한국 미술품 둘러싼 감정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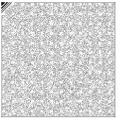
이중섭, 박수근, 천경자.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화가들이 남긴 그림은 목돈이 됐고, 때문에 끊임없이 진위(眞僞) 논란을 낳았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감정(鑑定) 결과는 술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고, 그때마다 좋은 싫든 미술 시장은 새 국면을 맞았다. 그러다 지난 6월, 난데없는 한국 미술계의 ‘감정 대립’이 시작됐다. 발단은 국내 미술품 감정을 사실상 주도해온 (주)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해산이었다.

미술품 감정의 역사, 행방은?

평가원은 화랑가 및 학계 인사들이 모여 2002년 출범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2011년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으로 명칭 변경)에서 기원한다. 개인이나 회사로부터 감정료를 받고 해당 미술품의 진위 의견 및 시가(市價) 감정을 해왔다. 세간을 뒤흔든 판정도 여럿이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05년 유족이 소유하고 있다가 경매에 내놓은 이중섭의 그림 <물고기와 아이>에 대한 위작 판정이 꼽힌다. 대법원까지 간 이 다툼은 결국 2017년 ‘위작’으로 결론이 났다.

그랬던 이 단체가 세대교체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해산을 의결하면서, 16년간 쌓인 ‘감정 자료’ 처리 문제가 대두했다. 가장 발끈한 곳이 바로 한국화랑협회(이하 화랑협회)다. 화랑협회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981년부터 미술품 감정을 해오다 2007년부터 평가원과 업무 제휴를 맺고 일임해왔는데, 평가원 해산 후 감정 업무 재개 방침을 밝히며 “감정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화랑협회는 “평가원 측이 감정 자료에 대한 책임 의식 없이 폐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인사가 자료 선점에 실패하자 아예 폐기하자는 것”이라며 “이 귀중한 자료가 사라지면 한국 미술품 감정이 10년은 퇴보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미술품 감정 데이터베이스 폐기 금지 요청’ 서명 운동을 벌였고, 지난달 법원에 자료 열람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감정 자료는 감정이 의뢰된 미술품의 특징 및 사진, 감정위원회 소견 등이 망라된 서류를 뜻한다. 지난 3월 평가원 해산을 의결한 주주총회에서도 자료 처리를 두고 고성아 오갔고 “오픈 소스로 공개하자”, “주주가 똑같이 나눠 갖자”, “판매하자” 등 의견이 분분했다. 이후 “아예 폐기하겠다”라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최웅철 화랑협회장은 “폐기될 경우 지금까지 발급된 감정서의 효력은 물론 훗날 진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위험이 크다”고 했고, 윤용철 부회장은 “평가원 측 몇몇 멤버가 자료를 선점하려다 가로막히자 아예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평가원 측의 임명석 우림화랑 대표는 “폐기 주장은 감정이 격해져 나온 얘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현재 9,000여 건의 감정 자료는 외부 접촉이 차단된 채 평가원 사무실에 봉인돼 있다.



2008년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전신) 오광수 감정위원장이 박수근의 그림 <빨래터>에 대한 진품 감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정 경쟁 시작, 감정 다툼 되나?

평가원 해산 직후 새로운 감정단체가 출범했다.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과 이호숙 전 서울옥션 스페셜리스트를 공동 대표로 한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이하 센터)다. 하지만 이 센터가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감정위원 절반 이상이 기존 평가원 인사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화랑협회 측은 “당초 평가원의 해산 이유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단법인화를 내세워놓고는 새 주식회사를 만들어 나간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준모 대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 일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라며 “평가원과 연결 짓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화랑협회와 센터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선의의 경쟁이 감정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각 단체의 진위 의견이 갈릴 경우 시장에 물고 울 혼란”의 염려로 미술계 분위기는 양분됐다. 두 단체는 지난달 경쟁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구상을 밝혔다. 센터 측은 “경쟁을 통해 시장 신뢰도를 얻겠다”라며 “민예품, 도자기로도 영역을 넓히겠다”고 했고, 8월부터 감정 업무 재개 방침을 밝힌 화랑협회 측은 “감정서에 블록체인 방식을 도입하겠다”거나 “해외 유수의 작가 재단과 협업하겠다”는 등의 구상을 밝혔다.

외국은 주로 예술가 사후 설립된 재단 측이 유작(遺作)의 진위 감정을 담당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화랑가 및 외부 전문가의 사실 단체가 많고 있어 같은 작품에 대해서도 단체별로 진위 결과가 갈리거나 사익 추구의 공신력 문제 등이 불거져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감정단체 중 한 곳을 ‘미술품감정연구센터’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향후 이 단체로 지정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글 정상혁_조선일보 기자 사진 조선일보DB

문학 권력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한 때

문단 내 대필 관행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대필’을 입력했다. 최신 뉴스로 대학교수가 딸을 대학원에 합격시키기 위해 제자들에게 논문을 대필시켰다는 소식, 대학원생이 대필한 박사학위 논문을 학교에 제출해 업무방해로 기소된 감사의 소식이 나온다. 뉴스 목록을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 한때 문학계를 술렁이게 했던 소식이 보인다. 김경주 시인이 2016년 세월호 전시 도록과 도서관 소식지에 실린 글 등 두 편을 대필시켰다는 소식이다.

앞선 두 사건과 김경주 시인의 대필 사건은 결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대학 입학과 학위를 부정하게 얻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사건에 비해 전시 도록·도서관 소식지 글 대필은 비교적 사소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글로 먹고사는 작가가, 유수의 문학상을 탄 유명 시인이 남이 쓴 글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건 윤리적·문학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로 보인다. 이 사건들을 ‘대필’이란 말로 한데 묶는 것은 합당한가?

‘파급력’에 대한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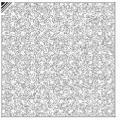
우선 김경주 시인의 ‘대필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자. 대필 사실은 지난 5월 미디어아티스트 흑표범이 2016년 열렸던 세월호 전시 <VEGA>의 도록에 실린 ‘서쪽 건너에 비치는 환시’의 저자를 김경주에서 소설가 차현지로 정정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3년 만에 진짜 저자가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대필 과정을 두고는 김경주와 차현지의 말이 엇갈렸다. 두 사람은 2010년 대학에서 사제지간으로 만났다. 김경주는 베스트셀러 시인이자 김수영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한 유명 시인이었다. 차현지는 2011년 소설로 등단한 이후 신인 시절부터 김경주와 함께 일하며 그를 도와 김경주의 대학원 졸업작품 조연출, 시나리오 서브작가 등의 일을 해왔다.

김경주는 두 사람이 ‘평등’한 관계였다고 했다. 김경주는 경향신문에 보낸 메일에서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아니라 협업관계였다”라며 “대필 사건 역시 협의하에 진행한 일”이었으며 “둘 사이에 위계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로 큰 상처를 입은 가족이 있어 정신적 문제로 글을 쓰는 게 어려웠다”라며 차현지 작가와 협의하에 모든 교료를 지급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현지의 말은 조금 달랐다. 그는 “두 글 모두 김 시인이 제안했다”라며 “신인이고 문단에 아는 사람도 없을 때 김 시인의 제안으로 여러 일을 맡게 됐고, 급여를 받은 일도 있지만 무급으로 한 일도 있다”라고 했다. 또 “선후배, 유명 작가와 신인이라는 상하관계 안에서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었다.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대필을 수락해 자책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김경주가 차현지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은 또 달랐다. 그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닐 것이다. 그 파급력은 너의 주변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주는 ‘파급력’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금전적 지



 **흑표범**
5월 27일 · 🌐

VEGA에 대한 비평, "서쪽 건너에 비치는 환시" 원고의 필자명을 3년 만에 정정합니다.

"시인 김경주에게 본 전시의 원고를 의뢰하여, 2016년 "서쪽 건너에 비치는 환시" 원고를 받아 도록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김경주 시인 본인의 고백으로 이 원고가 '대필'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원작자인 차현지 소설가와 직접 사실을 확인, 원고 게재 동의를 구하였기에, 본 글의 저자명을 김경주에서 차현지로 정정하였습니다."

*깊은 유감을 밝힙니다.

미디어아티스트 흑표범은 자신의 SNS에 전시 <VEGA>의 도록에 실린 원고의 필자명을 정정한다는 글을 올렸다. (출처_흑표범 페이스북 갈무리)

급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닌 것에 대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조가 다소 격하게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나 차현지에게 이 '파급력'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다. 앞서 던진 질문, 교수와 검사의 대필 사건과 김경주 시인의 대필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파급력'이란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스스로 제도 밖에 서다

문학계는 특정 조직과 제도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문학상과 문예지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문학 시스템'이 분명 존재하며, 문학상 심사위원, 문예지 편집위원 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시스템으로서의 문학'은 분명 존재한다. 그 제도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가 2016년 말 터져 나온 '#문단 내 성폭력' 고발 운동이었다. 유명 작가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근거로 학생과 습작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했으며 실제 배용제 시인 등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천희란 소설가는 "문학의 권위가 폭력이 될 수 있다. 그해의 작품들 가운데 몇몇 작품에게 상을 주고, 특정 작가를 조명하고 평가하며, 작품을 실을 기회와 출판의 기회가 나뉜다. 문학은 수평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경주의 대필 사건이 알려진 이후 문예창작 박사인 한 교수는 "박사학위 과정 당시 지도교수(시인)의 논문을 대필했다"라고 한 언론에 폭로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등단부터 문예지 작품 게재 권한까지 전방위로 교수의 위력이 닿아 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게 이 바닥의 고질적 문화"라며 "대필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털어냈다. 다행인 것은 '파급력'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이들이 이제 스스로 제도 밖에 서길 결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현지는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 자신의 소설과 비평문 등을 공개하며 일부는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스스로 플랫폼을 만들어 독자들과 직접 만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외에도 독립 문예지 창간, 이메일을 통한 직접 독자 모집 등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필 사건은 김경주 시인이 한 매체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파급력'은 계속되고 있다.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 연대모임 아가미'는 좌담회 '파급력 파티'를 기획했다. "문단의 어르신, 선배 등 위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파급력'에 방점을 찍은 좌담회"라고 설명했다. 아직 말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숨겨진 목소리들이 발화되는 것은 우리 문학을 발전시키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단 내부에서도 문학의 이름으로 벌어진 잘못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사회가 추구하는 합리성을 마련하지 못한 '문학'은 '낡은 것'이 될지도 모른다.

글 이영경_경향신문 기자

춤으로 하나가 되다

2019 서울춤자랑 네트워킹 댄스파티

‘내 나이가 어때서’,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시간. 지난 7월 1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서울춤자랑 네트워킹 댄스파티는 어느 댄스 페스티벌보다 뜨거웠다.

경쟁보다 즐기는 게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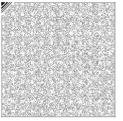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은 2017년부터 올해로 3년째 생활예술 춤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춤자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센터, 문예회관, 복지관 등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운영 기관에서 춤을 배우는 수강생들이 만든 춤 동호회를 대상으로, 춤에 대한 열정을 뽐낼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40~80세 시민으로 구성된 춤 동호회를 모집했고, 서류와 영상 심사로 40팀을 선발했다. 이후 실연 심사를 거쳐, 20팀의 본선 진출팀이 가려졌다. 이들은 9월 5일 KBS홀에서 예정된 공연을 통해 실력을 발휘한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심사로 으뜸상 6팀을 뽑고, 관객 투표 결과에 따라 시민상 2팀이 결정된다.

9월 경연을 앞두고 열린 서울춤자랑 네트워킹 댄스파티는 본선에 진출할 20팀이 교류하고 공감하는 자리였다. 이는 지난 2년간 없었던, 처음 준비한 행사. “생활예술이라는 취지에 맞게 경연 중심으로 진행하기보다 참가자들이 교류하고 춤을 즐길 수 있는 파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이인준 주임은 이번 행사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아마추어 동호회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 본선 심사에서 예술성보다는 팀원 간의 조화를 우선시하고 무대를 즐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주요 프로그램이 경연이다 보니, 참가자들은 늘 긴장한 상태로 무대에 오르곤 했다. 그들이 마음 놓고 재미있게 춤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에는 네트워킹 댄스파티를 준비했다.

음악과 춤이 있다면

노란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참가자들로 가득한 홀. 말 그대로 나이를 잊은 듯이, 시작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들뜬 모습을 보였다. “경연이 아니라 파티에 오신 겁니다”라는 MC딩동의 말에 모두 열띤 호응을 보내며 시작된 행사. 음악만 나왔다면 다들 몸을 들썩이고, 사회자의 즉흥적인 제안에 무대 위로 올라가 춤을 추는 참가자도 있었다.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자발적으로 무대에 올라가 게임을 즐기고, 몸풀기 댄스 요청에도 모두 열정적으로 응하며, 초반부터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본선에 진출하는 20팀을 소개하는 시간. 홀라댄스를 추는 ‘HDAK 홀라오하나’와 ‘노원문화원 레후아’, ‘한국하와이안홀라협회’는 홀라댄스에 대한 소개는 물론 간단한 하와이 인사말로 홀라댄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SBJH 벨리댄스’와 ‘시루미무용단’은 벨리댄스를 추는 67세 남성 회원과 한국무용을 하는 82세 여성 회원을 소개해 큰 박수를 받았다. ‘낭랑 18세’는 치어리더의 손동작과 에어로빅의 발동작을 합친 치어로빅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고, ‘허니버니 부



1, 2 2019 서울춤자랑 네트워크 댄스파티.

부 포크댄스 클럽'은 부부가 함께 춤을 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도전한 '은평춤사랑'과 '카리스 한국무용단',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라운나눔'과 '미소무용단', '은하예술단', 그리고 라인댄스를 위해 모였다가 지금은 시니어 모델을 겸하는 멋쟁이 어른들로 모임을 꾸린 '씨나' 등 팀마다 다양한 사연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굿피플', '라인스타', '브리다 벨리댄스', '서울포크댄스 무용단', '전농라인맘즈'처럼 세계의 춤을 추는 팀과 '새락골 무용 동아리', '예술사랑방 온'처럼 한국의 전통무용을 선보이는 동호회들이 함께했다.

40세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그들의 예술 활동을 더욱 잘 이해하고 독려하는 예술가의 참여가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인물로 안은미 무용가만 한 사람이 있을까? <땀샘마마 프로젝트>와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등을 통해 시니어 세대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독특한 예술 세계를 보여준 그가 등장해, 간단한 강습과 댄스파티를 진행했다.

안은미 무용가가 “예쁜 어머니님 아버님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환호성이 쏟아졌다. 그는 “나와 같은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데, 춤은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아름답고 황홀한 예술”이라며, 네트워크 파티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서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의 일부를 영상과 무대로 만났는데, 노인들의 몸짓과 그들에게 익숙한 음악을 바탕으로 한 공연은 매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다 같이 추는 게 좋아요!” 안은미 무용가는 모든 참가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앉았던 의자를 치워서, 홀을 파티장으로 만들었다. 간단한 댄스 강습 시간, 단번에 동작을 배우는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춤꾼다운 실력이 드러났다. 댄스 강습을 하는 동안에도, 안은미 무용가는 춤을 익히는 것보다는 서로 모르는 참가자들과 춤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끌었다. 천장에서는 미러볼이 빛나고, 무대에서는 흥겨워하는 참가자들의 몸짓이 빛났다. 9월에 있을 KBS홀 공연과 위댄스페스티벌, 그리고 이후의 춤 인생에서 내내 함께할 그들의 열정이 빛났다.

글 이민선_자유기고가 사진 서울문화재단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 진흥
증장기계획(2019~2023)'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박물관·미술관 진흥 증장기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우리 삶의 핵심 문화기반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그동안 분리 추진했던 박물관·미술관 진흥시책을 포괄해 종합적인 발전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림은 처음 데이트할 때 우리가 상대에게 얼마나 감사하다고 느꼈는지 상기시켜준다."(니콜로 피사노, 〈목가사: 다프니스와 클로에〉)

예술품은 때분해져버린 것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되살리는 위대한 능력이다.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은 〈영혼의 미술관〉에서 "예술은 우리의 허약한 상상력을 지탱해준다"라고 했다. 루브르박물관, 뉴욕현대미술관, 에르미타주미술관, 프라도미술관, 국립고궁박물관, 카이로박물관 등에 세계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삶의 질을 높이는 여기문화 불이 일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정책도 활발해졌다. 박물관·미술관 진흥과 효과적 관리는 우리 문화 보존과 더불어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가까이 찾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그 수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전국 1,124개인 박물관·미술관을 2023년까지 186개 늘려 1,310개로 만들 계획이다. 박물관은 현재 873개에서 1,013개로 140개, 미술관은 251개에서 297개로 46개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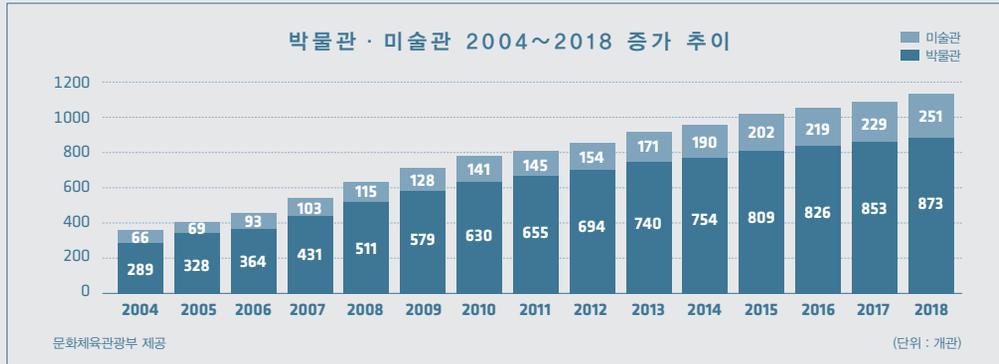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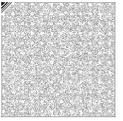
이는 2018년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하면서다. 정부는 생활 SOC에 30조 원을 투자한다.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생활 문화기반시설로서 박물관·미술관은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비전이다. 공공성 강화, 전문성 심화,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5개 전략과 16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박물관·미술관은 2013년 911개에서 2018년 1,124개로 약 23% 증가했다. 박물관은 740개에서 873개로 18%, 미술관은 171개에서 251개로 47%나 늘었지만 박물관이 미술관보다 약 3.5배 많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박물관·미술관 집중 현상도 여전하다.(수도권 35.5%, 수도권 외 64.5%)

문체부는 "박물관·미술관 1개관당 인구수 기준으로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현재 전국의 박물관·미술관 1개관당 인구수는 4만 5,000명으로, 정부는 2023년까지 3만 9,00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용률도 2018년 16.5%에서 2023년엔 두 배 가까운 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박물관·미술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0명당 16.5명에 불과했다.



박물관 · 미술관 등록제, 학예사 자격제 등 개선

박물관 · 미술관의 학예인력은 평균 1~2명에 불과하다. 국립박물관 1개관당 직원 49명 중 학예인력 8.57명, 국립현대미술관은 직원 337명 중 45명으로 조사됐다.

현재 제1종 박물관은 분야별 소장품과 학예인력 여부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이 구분의 경계가 모호하고 실효성 또한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종합-전문 박물관의 구분을 없애고 일원화를 추진한다. 학예사 자격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요건이 되는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경력인정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학예사 자격증과 국공립기관 채용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가 광역 공동 수장고를 건립할 때, 건립비의 50%까지 지원한다. 언제 어디서나 박물관 · 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전시 안내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박물관 · 미술관'을 구축한다.

입장료 소득공제 최대 100만 원

7월 1일부터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도 시행됐다. 박물관 ·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으로,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 · 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기존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7월 1일 기준으로 박물관 · 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지만 '문화 강국'의 길은 쉽지 않다. 12년 만에 이룬 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는 통계다. 실업률은 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먹고살기도 힘들다', '볼게 없다'는 푸념도 많다. 무늬만 박물관 · 미술관인 공간도 많다. 재정적 한계, 시설 노후화, 편의시설 미비 등 관리 운영 문제가 속제다. 지속가능한 박물관 ·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먼저 필요하다. 전시장은 아파트가 아니다. '많이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다'라는 미술계의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글 박현주_뉴스시스 기자

미래의 용산공원으로 가는 첫 발걸음

용산공원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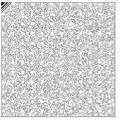
일제강점기 30여 년간 조선 청년들이 징병되어 일본 군인으로 훈련받았던 용산병영은 8·15 광복 후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66년간 용산 미군기지로 사용되며 격동의 근·현대사를 품었다.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용산기지가 최근 새로운 공원의 역사를 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 내 옛 USO(주한미군미국위문협회, United Service Organization) 건물을 주한미군과 공동주관으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용산공원 갤러리'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건물은 원래 약 110년 전인 1908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강점기 일본군 육군 창고 사무소로 사용되었다가 한국전쟁 후 용산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USO로 활용되었다. 2018년 8월, 평택으로 이전된 USO는 한국인과 미군들의 문화 교류를 형성하는 데도 이바지했다. 주한미군이 지자체와 함께 기지 반환 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서울시와 주한미군의 역사 전시관으로 사용한다는 양측의 합의로 운영되는 것도 특이점이다. 올해 6월 마지막 주말부터는 역사 전시관에 더해 편의공간과 자료실 등을 포함한 소통공간을 추가 개방하고, 운영 시간을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확대하고 있다.

용산공원 갤러리의 탄생

2004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용산기지이전협정'(UA·IA)에 따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용산기지 이전과 평택기지 건설을 함께 진행해왔다. 2008년에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됐고, 2012년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은 용산공원 국제 공모전에서 '이로재·West8·동일기술사'가 제안한 '회복과 치유의 용산공원'을 당선안으로 선정하여 기본 설계안을 마련했다. 기지 이전협정 체결 후 지난 15년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공원 조성정책의 제한된 추진 배경 속에 더딘 기지 이전과 공원 설계 용역이 병행되어왔다. 정확한 현장조사 없이 추진된 공원 계획안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국민 공감대 형성과 서울시민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은 사회적 갈등으로 빚어지기도 했다. 용산공원 조성은 한·미 양국 간의 협의의 아래 기지 폐쇄와 반환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아직 정확한 기지 폐쇄와



1 용산공원 갤러리 전경.
 2 용산공원 갤러리 도슨트 프로그램.
 3 용산공원 갤러리 참여 프로그램 '꼭두청룡 오토마타 만들기'.

반환 시점은 모호하다. 서울시는 2018년 8월에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중 공실로 남겨져 있는 건물 활용을 제안했고, 9월부터 주한미군사령부와 USO 건물 활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3개월간의 긴밀한 협의로 11월 30일 개관된 용산공원 갤러리는 기지 반환 전에 용산기지의 장소적·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전시관과 용산공원의 미래상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려보는 소통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용산공원 갤러리는 용산기지를 거친 수많은 한국인 카투사와 주한미군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과 기억을 존중하고 추억하며 양국 문화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용산공원 조성에 앞서 공론화와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용산공원 조성의 마중물 역할

용산공원 갤러리에는 서울역사박물관, 국가기록원, 용산문화원, 개인이 소장한 사진, 지도, 영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한·미 동맹의 상징이었던 용산 미군기지의 역할, 한국전쟁 후 지난 66년간 서울의 발전과 함께한 주한미군과의 관계 등을 담았다.

지난 6월에 추가 공개된 1개 동의 1층에는 용산공원 갤러리 방문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카페를, 2층에는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실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을 두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공간인 다목적 회의실로도 꾸며져 있다. 계속해서 전시 도록, 세미나 자료집, 단행본, 보고서 등 다양한 활동의 결과물을 수집하여 소통공간에서 시민들

이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여름방학(7~9월) 기간, 매주 토요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용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한 뒤 움직이는 용 인형을 만드는 '꼭두청룡 오토마타 만들기'를, 성인 대상으로는 용산공원 갤러리 건물에 남아 있는 역사의 흔적을 탐구하는 시간과 함께 원데이 드로잉 프로그램인 '건축산책 드로잉 클래스'를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에서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용산공원 갤러리 담당 주무관(02-2133-2589)에게 문의하면 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용산기지 주변지역 워킹투어'를 하반기(9~11월)에도 계속해서 확대 진행할 계획이며,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보는 '용산기지 버스투어'도 8월 마지막 주부터 진행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산공원 갤러리 확대 운영에 대해 "용산공원 갤러리의 운영 시간과 공간 확대로 보다 많은 시민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갤러리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관심을 높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용산공원 갤러리가 자발적인 시민 참여 분위기 형성과 용산공원 조성 과정의 공론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글 전주호_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제공 서울시 도시계획국 전략기획과

빈 공간을 문화와 예술로 채우다

〈빈집프로젝트 BE-IN HOUSE〉

금천문화재단의 〈빈집프로젝트 BE-IN HOUSE〉(이하 빈집프로젝트)는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다.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비어 있는 공간들을 활용했고 사업 첫째 '빈집1家'(이하 1家)를 시작으로 2018년 '빈집2家'(이하 2家)와 '빈집3家'(이하 3家)가 생겼다. 각 공간은 지난해까지 주로 전시공간과 창작 스튜디오로 활용됐고, 올해부터는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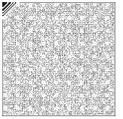


3개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빈집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재단 사업 담당자와 1家的 예술코디네이터 2명, 2家的 예술가 2명, 3家的 예술가 2명이 기획하고 운영한다. 공간에 상주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코디네이터와 예술가는 재단 소속으로, 빈집프로젝트가 '2019년 서울시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며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텅 빈 공간에 문화와 예술을 입히는 작업을 한다. 각 공간의 거리는 도보로 5분 내외다. 1家(독산로 96길 6, 1층)는 빈집프로젝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합정보를 총괄하며 지역민의 참여를 독려한다. 2家(가산로 6, 3층)는 젊은 작가들

의 작품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갤러리와 배움이 있는 예술 공간으로 운영된다. 3家(독산로 295, 2층)의 주제는 휴식으로,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오감을 통한 예술 활동으로 치유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술을 통한 휴식과 힐링

1家에서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된 〈릴레이사진 워크숍〉은 예술코디네이터들이 주민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초상을 찍어주는 워크숍이었다. 12회에 걸쳐 진행된 행사에서 참여자들은 거주지 금



- 1 1家 외부 전경.
- 2 1家 내부 전경.(2017 오픈스튜디오)
- 3 2家 <폼어내다> 최재혁 작가 전시 전경.
- 4 2家 '타일 일러스트레이션 소품' 최정연 작가 워크숍 전경.



친의 추억과 경험을 공유했고 그 흔적과 함께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앞선 참여자의 사진이 다음 참여자 사진의 배경으로 들어가며 겹겹이 쌓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그렇게 모인 사진은 금천의 시간이 되고 역사가 됐다. 8월 12일부터 30일까지는 이 사진들을 전시하는 <독산사진관-릴레이사진전>이 진행된다. 이미지로 보여줄 금천의 역사가 사람들의 소박한 모습이 중첩된 이미지라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진다.

2家에선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고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타일 일러스트레이션 소품', '금천의 풍경

을 담은 에코백 만들기', '스칸디나비아 모스(Scandinavia Moss) 친환경 실내 장식 소품만들기'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스칸디나비아 모스는 친환경 소재로 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 문제와 공간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사용하게 된 소재다.

휴식과 치유가 주제인 3家에선 '오감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촉각, 시각, 청각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주 2회 후각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심신에 안정을 주던 냄새를 기억하고 얘기하며 그 느낌을 이미지로 형상화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종적으로는 디퓨저를 만들고 공유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옛것을 돌아보게 하는 기획전

초대 작가의 기획전시가 보고 싶다면 다시 2家로 가야 한다.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2家の 책임자 중 한 명인 이규원 작가와 초대 작가 윤제원의 2인전 <크로스 포인트 X-point>가 이어졌다. 두 작가는 몇 년 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시각예술가란 공통점 외에도 서로의 작품에 이름을 바꿔 달아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작품이 비슷했다. 그때의 인연이 이어져 전시를 함께하게 되었고, 실제로 공간 '크로스 포인트'에 있는 두 작가의 작품을 보면 한 작가의 작품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유사했다. 크로스 포인트를 기점으로 왼쪽은 이규원 작가, 오른쪽은 윤제원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점점에서 멀어질수록 두 작가의 개성이 뚜렷이 구분되는 느낌이였다.

새로운 전시 <폼어내다>는 8월 8일까지 진행된다. 앞선 전시와 같은 2인전으로 김수수 작가와 최재혁 작가가 주인공이다. 정물을 그리는 두 작가는 일상에서 마주한 사물들을 관찰하고 재해석하여 캔버스에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람의 손때가 묻은 사물들에 집중하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한 뒤 자신의 손길을 담아 표현한다는 점은 두 작가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옛것은 버리는 존재가 아닌 폼어야 하는 존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폼어내다>는 기존의 모습을 해치지 않으며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가는 빈집프로젝트와도 닮아 있다.

글 전주호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제공 금천문화재단

가장 예술적이고 인간적인 체험, 어린이 관객의 촉각과 시각을 깨우다

참여놀이극 <돌, 돌? 돌!>과 인형극 <루루섬의 비밀>

아이들의 감각을 일깨울 해외 극단의 작품 두 편이 8월 방학기간에 한국을 찾는다. 텍스트나 영상에만 익숙한 어린이들은 배우와 얼굴을 맞대고 예술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영국 웨일즈에서 날아온 참여놀이극 <돌, 돌? 돌!>에선 아이들도 극의 일부가 된다. 직접 돌과 흙을 만지며 배우를 도와 아름다운 집을 꾸민다. 일본과 한국 극단이 공동 제작한 인형극 <루루섬의 비밀>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림자와 인형의 움직임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국내 관객과 처음 만나는 두 작품을 놓치지 말자.

배우와 함께 꾸미는 무대 위 소꿉놀이

<돌, 돌? 돌!> 8. 3~8. 4,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약 1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흙과 모래가 가득했다. 모래성 쌓기는 놀이터에서 제일가는 놀이였고,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아이들 손에서 물길이가 만들어졌다. 마른 흙바닥을 긁어 그림을 그리고 작은 돌맹이로 소꿉놀이를 할 때면 모두가 소소한 역할놀이극에서 작은 주인공이 됐다.

아쉽게도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놀이터의 모습은 생경하다. 흙과 모래가 가득한 자연은 일부러 시간을 내야만 갈 수 있는 먼 곳이 되어버렸다. 아동 연극계도 이런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다. 친절하게도 영국 웨일즈 극단 ‘아라드 고흐 씨어터’는 아이들 눈앞에 자연을 옮겨놓은 무대를 펼쳐 직접 놀이터가 되어주기로 했다.

참여놀이극 <돌, 돌? 돌!>(원제 <슬립 스톤즈>)의 무대에는 크고 작은 돌, 평평한 돌, 줄무늬 돌 등 수십여 개의 돌들이 모래와 함께 널려 있다. 배우들은 여기저기에 돌맹이를 늘어놓고 소꿉놀이 속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원 모양을 따라 둥글게 돌을 쌓은 뒤 한가운데 다른 돌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면 집이 되기도 한다. 보기에 따라 ‘돌

케이크’가 될 수도 있다. 무대 한쪽에서 연주되는 하프 소리에 맞춰 배우는 돌을 밟고, 때론 돌을 맞부딪치면서 리듬을 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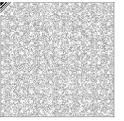
광경을 지켜보다 흥미가 생긴 아이들은 누구라도 극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놀이극을 표방하는 이 작품이 가진 매력이다. 어린이 관객은 두 명의 배우를 도와 본능적으로 새 집을 꾸밀 물건들을 찾아 나선다. 돌마다 다른 질감, 무게를 손으로 느끼면서 풍부한 촉각을 경험할 수 있다. 극은 놀이를 통해 우정, 실망,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일깨운다.

작품을 맡은 영국 웨일즈 극단 ‘아라드 고흐 씨어터’는 아동청소년 전문극단이다. 1989년 설립된 후 아이들을 위한 신나고 혁신적인 연극을 추구해왔다. 지금도 매년 새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러시아, 튀니지, 프랑스, 스페인,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극단의 목표는 “영감과 자극으로 아이들 기억에 남는 연극적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다.

그림자극과 인형극이 빛나는 판타지

<루루섬의 비밀> 8. 6~8. 25,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시각적으로 선명하고 강력하다. 어린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1



2

1 참여놀이극 <돌, 돌? 돌>. (아라드 고흐 씨어터, 아시테지국제여름축제 제공)
2 인형극 <루루섬의 비밀>. (극단 카카시좌, 예술의전당 제공)

<루루섬의 비밀>은 일본의 그림자 전문극단 '카카시좌'와 한국을 대표하는 인형극단 '예술무대산'이 공동 창작한 작품이다. 약 5년에 걸친 워크숍 끝에 올해 3월 일본 요코하마와 도쿄에서 처음 무대를 선보였다. 보완작업을 거쳐 8월 한국 관객과 만난다.

작품은 평범한 소녀 '하루'가 처음으로 도시를 떠나 비밀을 간직한 루루섬을 방문하는 이야기다. 어느 날 검은 고양이 '마루'와 만난 하루는 닭, 부엉이, 돼지, 뱀 등 다른 동물들을 차례로 만나며 친구가 된다. 섬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면서 이들과 힘을 합쳐 해적을 쫓아낸다. 위험에 처한 할아버지를 구하는 한바탕 모험이 끝난 뒤에 야 집으로 돌아온다.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여정 속에서 소녀의 눈에 보이지 않던 주변 모습이 조망된다. 모험을 겪은 하루는 한층 성장한다.

스토리는 여느 아동극처럼 평이하나 그림자극단과 인형극단. 속성이 다른 두 극단의 협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카카시좌 극단의 고토 케이 대표가 "속성이 완전히 상반되는 극의 형태"라고 할 만큼 융합이 난재였다. 한편에선 막 뒤에서 움직이는 손과 인형에 빛을 비춰 그림자를 만들었다. 다른 한편에선 막 전면에 위치한 인형을 빛으로 강조해야 했다.

그럼에도 두 극단의 융합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섬세한 그림자·영상의 조화에 독특한 인형극의 오브제가 더해져 신비함을 자아낸다. 판타지를 표현하기에 이만한 '컬레버'가 또 없다. 대사가 없어도 아이들이 빠르게 이해할 만큼 직관적이다.

일본 극단 카카시좌의 작품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아동 관객에게 행복한 순간이 될 만하다. 카카시좌는 1952년 창단 후 독자적 스타일의 그림자극을 개척해왔다. "아이들 마음에 꿈을 키우고 싶다"는 극단의 목표에 따라 그림자를 활용한 공연을 꾸준히 개발 중이다. 최근에는 출판, TV, 영상 작품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대표작 <핸드쉐도우 판타지 ANIMARE>는 22개국 33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연됐다.

글 김기운_동아일보 기자



현대미술, 현대사회를 의심하다

전시 <척추를 더듬는 떨림>과 <타이틀 매치: 김홍석 vs. 서현석, 미완의 폐허>

현대 문명사회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드는 전시들이 열리고 있다. 독일 베를린을 무대로 활동 중인 젊은 작가 4인의 그룹전 <척추를 더듬는 떨림>과 서울시립미술관의 6번째 타이틀 매치전 <2019 타이틀 매치: 김홍석 vs. 서현석, 미완의 폐허>가 그것. 다양한 현대미술 장르를 통해 현대사회를 둘러싼 두려움을 목도하고 미술의 역할을 고민하게 한다.

봐서는 안 됐던, 보고 싶지 않았던 '그 무언가의 존재'

<척추를 더듬는 떨림> 7. 11~10. 5, 아라리오갤러리 삼청

영국 출신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활약하고 있는 카시아 푸다코브스키는 작업 중 유명을 본 것 같은 체험에 빠졌다. 그 '유명'은 그가 본 것 중 가장 무시무시한 이미지였고, 오히려 그 두려움에 매료되고 말았다. 그가 말하는 떨림은 유명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일상을 잠식해오는 그 무언가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었다. 푸다코브스키가 목도한 '그 무언가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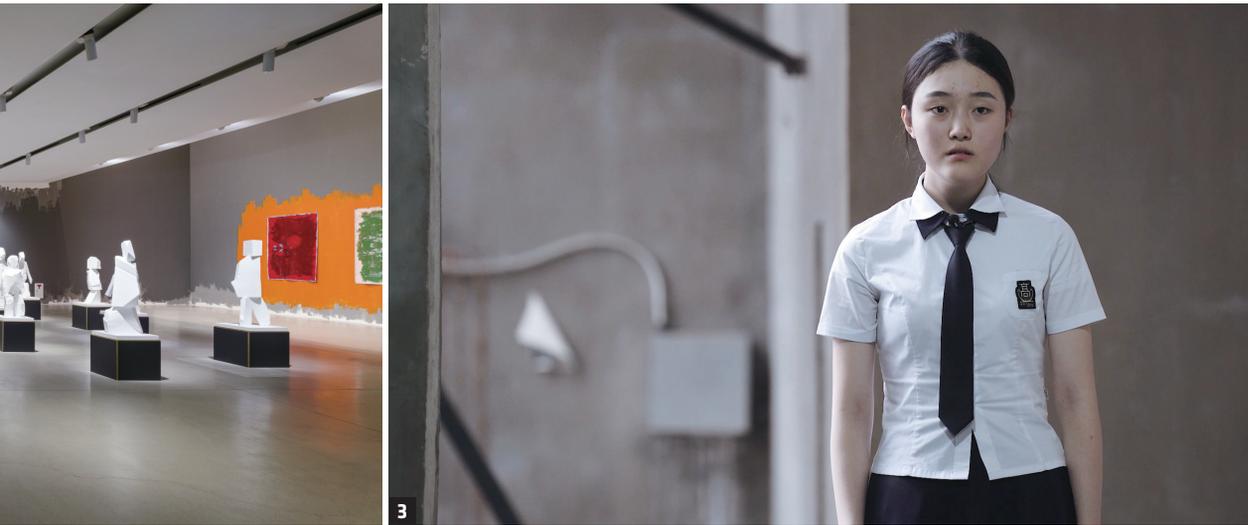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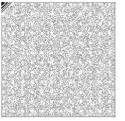
서울 종로구 북촌로의 아라리오갤러리 삼청에서 푸다코브스키를 포함,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 4인의 그룹전 <척추를 더듬는 떨림>이 열리고 있다.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이 작가들은 설치, 회화, 조각 등 25점의 작품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개념, 사

회적 구조를 과거의 중요한 역사적 맥락, 재구성된 공간, 망각의 상태와 같은 것을 풀어낸다.

전시 타이틀에 모티브를 제공한 푸다코브스키는 비어 있는 대합실의 의자, 욕실 커튼에 갇힌 새우와 같은 설치물을 제작함으로써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요구받는 책임과 개인의 자유가 통제, 감시되는 부조리한 사회구조에 주목한다.

남미 출신의 솔 칼레로는 건축의 구조적 요소를 회화와 설치에 활용한 작업을 선보인다. 런던에 있는 스튜디오 볼테르의 건축 양식에 대한 비평적 사유를 통해 그는 사회가 특정 문화를 차용해 권력의 지배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과정을 탐구한다. 또 코소보에서 태어난 페트릿 할릴라이는 사소하게 잊히는 학생들의 낙서를 통해 어떻게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공동의 역사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아프리카에서 유년기를 보낸 네덜란드 출신의 조라 만은 케냐의 해



1 Installation view of A Shiver in Search of a Spine, ARARIO GALLERY SEOUL, SAMCHEONG, 2019.
Zora Mann, Cosmophagy, Plastic beads, string, fabric, 350×460cm, 2015.
2 김홍석, <불완전한 질서개발(의지)>, 혼합재료, (H) 100~140cm, 2019.
3 서현석, <먼지극장5> 퍼포먼스, 10분, 풍동실, 퍼포머 안연우, 2019.

변과 수로에 버려진 플라스틱 슬리퍼들을 재활용해 만든 커튼을 통해 인류의 욕망이 되돌릴 수 없는 환경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발한다. 함께 전시된 방패 시리즈는 토착민족의 사이키델릭하고 장식적인 패턴 이면의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경험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준다.

4인의 작가들은 하나로 규합할 수 없는 현대미술의 여러 장르를 통해 다양한 사회의 정체성과 위계의 정치학에 얽혀 있는 모습을 예상치 못했던 감각으로 풀어낸다. 아라리오갤러리 관계자는 “파서는 안 될 것을 본,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목격한, 보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 작가들은, 마치 유명처럼 일상에 균열을 주는 미지의 경험으로 우리를 유인한다”라며 “뜨거운 태양과 칠혹 같은 어둠이 공존하는 여름, 우리 삶에 출현할 떨림을 이번 전시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미술은 유효할까?

<2019 타이틀 매치: 김홍석 vs. 서현석, 미완의 폐허>

6. 28~9. 15,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2019 타이틀 매치: 김홍석 vs. 서현석, 미완의 폐허>전 역시 현대 문명사회에 대한 숙고와 반성을 이끌어낸다. 김홍석, 서현석 작가는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고 자본과 스펙터클이 우리의 감각을 사로잡고 있는 오늘날의 미술이 유효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탐색으로 신작을 구성했다.

김홍석의 ‘인간질서’ 프로젝트는 중간재로 취급되는 사소한 재료인

스티로폼으로 만든 24점의 조각 <불완전한 질서개발(의지)>과 비닐 봉지로 이루어진 <인간질서(행성)>, 500개의 사과로 이루어진 <인간질서(사과탑)> 등을 통해 관습적인 미와 작품에 대한 개념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놓은 질서와 체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김홍석은 “인간질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인식 체계와 규칙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미술을 수용하는 범주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서현석은 <먼지극장>에서 예술의 이상을 상실한 상황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이 폐허가 된 모습의 VR 영상으로 조망한다. 그리고 장소 특정적 작업의 맥락에서 관람객들을 <먼지극장>으로 초대한다. 거친 콘크리트 질감을 가진 풍동실에서 성가를 부르며 나타나는 소녀, 텅 빈 전시실에서 미래의 열정을 가졌던 과거를 회상하는 내레이터, 작은 창 사이로 보이는 천사의 날개, 미술관 외부 벤치에 놓여 있는 구멍이 뚫린 책 등 미술관 건물과 공간을 주인공으로 하는 8점의 신작과 마주하게 된다. 서현석은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아방가르드의 비전이 무너진 오늘날의 작가로서 허망한 시선을 폐허가 된 미술관 이미지로 담았다”라고 말한다.

한편 전시 타이틀에 사용된 ‘타이틀 매치’는 세대와 장르를 넘어서 매체, 성향, 개성이 뚜렷한 두 작가가 한 가지 주제를 어떻게 협업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지 보여주며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6번째 타이틀 매치전이다.

글 이경택 문화일보 문화부 부장 사진 제공 아라리오갤러리 삼청,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조남주와 정유정, 두 여성 작가의 귀환

책 〈사하맨션〉과 〈진이, 지니〉

문학 담당 기자들이 큰 기대와 관심으로 기다린 올 상반기 출간 예정작은 조남주 작가와 정유정 작가의 신간이었다. 조남주 작가는 〈82년생 김지영〉으로 소설을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을 불러일으켰고, 정유정 작가는 〈7년의 밤〉, 〈28〉, 〈중의 기원〉으로 이어지는 ‘악의 3부작’으로 한국형 스릴러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명의 작가가 지난 6월, 3년 만에 신작 장편을 들고 독자를 찾았다. 공교롭게도 두 작가 모두 전작과는 전혀 다른 소재와 스타일의 소설로 독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조남주가 상상한 디스토피아는?

〈사하맨션〉 조남주 지음, 민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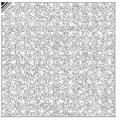
조남주 작가의 새 장편 〈사하맨션〉 속 사하맨션은 1994년 철거된 홍콩의 빈민촌 구룡성채를 모티브로 한 가상의 공간이다. 이곳에는 국가로부터 반쯤당했거나 애초에 반입되지도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 〈82년생 김지영〉으로 차별받는 여성들의 삶을 건조하게 고발한 조 작가의 관심이 이번엔 공동체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을 향했다.

소설의 배경은 기업이 인수한 가상의 도시국가인 ‘타운’이다. 경제력과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만 타운의 주민권을 얻을 수 있다. 사하맨션에는 주민권을 쟁취 2년간 임시로 타운에서 살 수 있는 체류권도 얻지 못한 밑바닥 인생들이 모여 산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남매 ‘진경’과 ‘도경’은 마지막 은신처로 사하맨션을 택한다. 힘드고 보수가 적은 일에만 종사할 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할뿐더러 차별도 감내해야 하지만 진경은 사하맨션의 삶에 적응해나간다. 도경이 타운의 주민이자 소아과 의사인 ‘수’와 사랑에 빠지고, 수가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하맨션과 타운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은 무너진다. 사라진 도경을 찾기 위해 타운으로 향한 진경이 맞닥뜨린 진실은 인간을 구분하고 배제하는 기준이 얼마

나 허약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82년생 김지영〉이 차별받는 존재로서의 여성에 주목했다면, 〈사하맨션〉에선 한층 넓어진 작가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밀입국자와 노인, 여성, 아이, 성소수자, 장애인까지 사회적 약자 전반을 아우른다. 낙태 시술 사고로 도망친 ‘꽃님이 할머니’, 보육사가 되고 싶었지만 신분의 벽에 가로막힌 ‘은진’,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눈이 없었던 ‘사라’... 바깥 세계에서는 차별받고 소외된 존재인 이들은 사하맨션 안에서 연대와 사랑으로 서로를 끌어안는다. 작가는 “주류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82년생 김지영〉에서 다큐멘터리 기법을 썼던 조 작가가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디스토피아 소설로 돌아온 것은 의외의 선택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가는 “내가 속한 공동체나 한국 사회가 뭔가 문제를 잘못 풀어가고 있다는 의문과 공포에서 〈사하맨션〉을 시작했다”라며 소설이 현실을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소설에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정권 교체 등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굵직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에피소드들이 등장한다. 낙태, 결혼 이주, 육아와 경력단절 등 다양한 여성 문제도 건드린다.



'스릴러의 대가'가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

〈진이, 지니〉 정유정 지음, 은행나무

정유정 작가는 2009년 등단해 한국 장편소설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특히 〈7년의 밤〉, 〈28〉, 〈종의 기원〉으로 구성된 '악의 3부작'에서 이야기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다. 때문에 '스릴러 작가'로 각인됐지만, 정유정 작가는 본래 밝다 못해 우렁찬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진이, 지니〉는 이런 정유정 작가의 활발한 에너지가 넘실대는 소설이다. 작가는 "지금까지는 스케일을 한계까지 키우고 이야기를 짓는 방식을 구축하는 시기였다면, 〈진이, 지니〉는 '이야기 자체'에 집중한 첫 번째 성과"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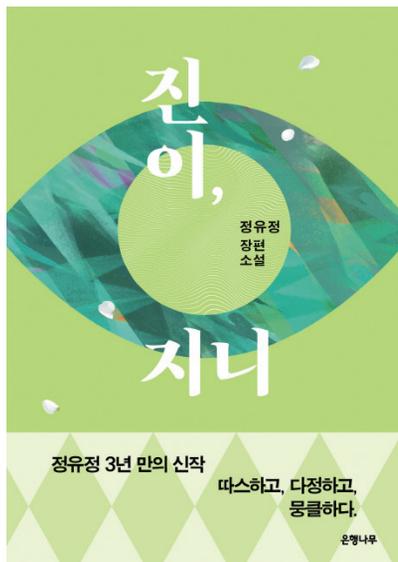
'진이'와 '지니'는 각각 칠판지 사육사인 여성과 그의 영혼이 빙의된 암컷 보노보다. 진이는 대저택에 감금돼 있던 보노보를 구출하고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 그의 영혼은 지니의 몸에 갇히고 만다. 진이가 제 몸으로 돌아가려 분투하는 사흘간의 여정이 소설의 줄기다. 보노보가 살던 아프리카 밀림과 소설의 배경인 강원도 원주를 오가며 정유정 작가 특유의 세밀한 묘사가 실 새 없이 펼쳐진다.

소설은 진이와 '민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민주는 죽으려고 강원도를 찾았다가 우연히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지니를 떠맡는다. 제 몸을 되찾으려는 진이를 도우면서 민주는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아나간다. 진이는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선택을, 민주는 삶 앞에 선 인간의 선택을 보여준다.

정유정 작가는 원래 칠판지를 소재로 쓰려 했다. 그러나 공격적이고 정치적인, 인간 수컷에 가까운 칠판지의 성격이 소설의 톤과 맞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보노보는 모계 사회를 구성해 살고 연대를 중시한다. 감수성도 풍부했다. 소설에 딱이었다. 그러나 생소한 소재인 만큼 방대하고 치밀한 취재가 필요했다. 작가는 소설을 준비하면서 보노보에 관한 책을 모조리 읽었다. 생물학자인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고 일본 교토대 영장류센터, 구마모토 보노보 보호구역, 독일 베를린 동물원 등을 직접 찾아가거나 질문을 보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죽음 앞에서도 자유의지는 유효할까요? 소설은 그에 대한 답입니다." 작가의 말이다.

글 한소범_한국일보 기자 사진 제공 민음사, 은행나무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뚝뚝...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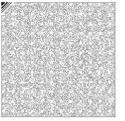


집을 편하고 예쁜 공간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조명과 소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집을 좋아합니다. 조금 막연하게 들릴 것 같아 설명하자면 거주와 휴식의 공간인 집을 좋아합니다. 보통 재충전을 위해 교외로 나가거나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 저는 집에서 쉬며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집을 더 편하고 예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근래에는 소품, 조명 등에 관심이 생겨 알아알이로 지식을 쌓고 있는데 아직 생경한 영역이라 어렵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소품과 조명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속공예가이자 조명·리빙 디자이너인 곽종범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글을 읽고 저도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매일 잠들고 눈뜨고 생활하는 집이란 곳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집에 만족할 만큼의 노력을 기울였을까?’ 일단 저도 집 꾸미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 그것들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소품들과 화병들을 집 구조에 맞게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직접 만든 가구들과 조명으로 공간을 바꿔보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으로 얻은 생각과 팁을 전할까 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을 꿈꿉니다. 이상적인 취향과 스타일을 담아내려다 보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인테리어



경향을 살펴보자면, 금속, 목재, 유리, 대리석 등 다양한 물성의 소재들을 과감하게 사용하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공간을 선호합니다. 공간 자체의 색감과 질감, 배치된 가구와 조도가 다른 조명, 독특한 소품, 창이 크기와 위치에 따라 공간의 인상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정원이 없는 집에서도 식물 등 가드닝(gardening) 소품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조명과 가드닝은 지출 대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인테리어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기능과 의미를 담은 조명

조명은 이제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넘어 개인의 취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오브제로서 중요해진 것입니다. 집 안 공간에 따라 필요한 조명도 달라 집니다.

먼저 침실은 휴식을 위한 공간이므로 광원이 눈이나 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때문에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간접 조명을 추천합니다. 숙면과 생체리듬에 해를 끼치는 백색광이나 청색광은 피해야 합니다. 조도가 100lux 이하인 노란빛 조명을 취침 등이나 간접 조명으로 사용해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유도하면 좋습니다.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실의 경우 과거에는 공간 전체를 골고루 비추는 전방 조명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최근에는 필요에 따라 높낮이가 다른 조명을 배치하기도 하고 간접 조명을 활용하여 빛의 층을 이루는 추세입니다. 공간별로 조도를 다르게 해 다양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합니다. 거실에서 편히 쉬거나 책을 읽을 때는 50~150lux가 적당합니다.

주방 및 식탁 위에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음식의 색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색성이 높은 조명을 권합니다. 개수대와 조리대 위에 놓을 조명으로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요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립형 LED나 T5 바(Bar)형 LED를 추천합니다.

그린 인테리어, 플랜테리어(planterior)

플랜테리어란 플랜트(plant)와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식물의 미적·기능적 요소를 활용해 보다 자연친화적 공간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식물의 초록 계열 색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공기 정화와 가습의 기능도 합니다. 어느 환경에서나 키우기 쉬운 아레카야자나 관음죽, 스파티필름 등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은 오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화병에서부터 벽이나 천장에 매다는 행잉 플랜트(hanging plant),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큰 화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와 벽지, 타일과 어우러지는 색상으로 선택하거나 포인트로 산뜻한 원색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식물을 키우는 게 부담스럽다면 드라이플라워나 조화, 혹은 식물 그림 액자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공예와 예술, 디자인에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일상에서 예술의 감동을 경험하는 것이 그만큼 자연스러워졌죠. 소소하지만 다양한 경험으로 자신만의 소중한 자산을 만들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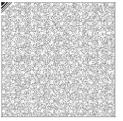
답변 광중변 금속공예가. 조명·리빙 디자이너. 건국대 공예학과를 졸업한 후 업사이클링 브랜드 '러스티아일랜드'를 론칭했다. 신당창작아카데미 10기 입주작가이며, '광중범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다.

위무(慰撫)의 등대를 찾아 보문동으로 갔다



1979년 보문동, 박완서 선생님과 따님들.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소설과 관련한 수업을 부업으로 한 지 꽤 오래됐다. 올해도 봄철에 짧은 수업을 했는데 어떤 수강생 한 분이 내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읽어줬다. 내용은 당신이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자신만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딱히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리긴 했다. 나는 늘 내가 비굴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지구탈출을 꿈꾸며 산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만만하다니! 어쩌면 '꼴값'이 대단하다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여간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나는 절망과 두려움이 내 인생이란 얼굴에서 지금까지 내내 사라지지 않았던 표정이라고 믿는다. 적어도 삶이란 것을 이해하고 아끼게 되기 전까진 그랬다. 그 이전엔 왜 그랬을까? 어렵지 않게 대답을 찾았다. 총체적 가난에 매몰되어서였다. 부자 팔자(八字)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타고나서 먹고사는 걸 꾸러 다니진 않았다. 그러나 정신은 한없이 가난하고 비루하기까지 했다. 어릴 때부터 희망도 소설, 딱 한 가지밖에 가지지 못해 그것 아니면 달리 없어서 곧장 절망과 좌절의 낭떠러지에 서야 했다. 희망과 절망의 회오리는 소위 꿈이란 것을 이룬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럴 때 내가 살아남기 위해 가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 가면 말로 표현하기 어



려운 위무(慰撫)의 등대가 있었다. 보문동이였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걷고 또 걸어서 가야 했다. 작은 네모꼴 마당이 있는 집. 한옥이였다. 대문을 들어서면 문간방과 왼편과 맞은편에 방이 있으니 디귤 자집이였다. 왼편과 오른편에 잇닿은 방 앞엔 툇마루가 있었다. 다섯 남매를 낳아 기르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남편과 살던 소설가 박완서. 바로 그를 등대 삼아 찾아가곤 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가난한 마음을, 의지가 지없는 청춘을 꿰뚫고 있었을 것이다. 하기가 누군가의 등대가 된다는 건 부담스럽고 심지어 귀찮은 노릇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박완서와 나의 정신적 교직(交織)의 비밀을 슬픔의 울음으로 느낀다. 선생님은 거의 천재에 가까웠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천업 같은 사람의 속은 물론, 세상에 대해서도 투시하듯 느끼고 판단했다. 그러니 나의 혼스런 본성에 대한 이해와 연민에도 섬세하고 날카롭고 따뜻했다. 그는 내 슬픔을 공유해줬고 내 분노에 공감해줬다. 인연의 시작은 이랬다. 등단하던 해 아주 화창한 봄날, 소설가들끼리만 단합대회를 하러 야외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행사가 끝나고 타고 갈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끼리끼리 모여 있었다. 그때 같은 원탁에 앉았던 분 중에서 한 분이 내가 등단 후에 발표한 단편소설 <복수>를 칭찬해줬다. 그 칭찬이 내 영혼을 먹여 버렸다. 아니다. 내 영혼이 그 칭찬을 삼키고 뱉지 못했다. 기쁘고 아까워서였다. 그해에 그렇게 만난 우리, 우리라는 표현은 썩 어울리지 않는다. 대개 내가 매달리는 형국이었으니. 위로와 격려를 다급하게 필요로 하는 편은 언제나 나였으니까. 그분만큼 나를 이해하고 들여다보아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주 오래전, 결혼할 거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다.

“세상이 조금 보이세요?”

그 순간 내면에서 뭉클거리던 뜨거운 부끄러움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사랑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감미로운 것만은 아니다. 태풍처럼, 해일처럼 뒤흔들어 낚은 것을 떨어뜨리고 속을 뒤집어 대청소를 시키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선생님은 내게 작거나 커다란 사랑을 베풀고 가신 분이다. 그는 자신의 친절이 받는 사람에게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마음을 썼다.

그를 처음 찾아갔던 보문동,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들, 마지막으로 구리시의 아치울 집. 마당에 백 가지도 넘는 꽃과 나무들을 기르고 흙과 생명의 교감에 당신도 끼어들던 노년의 시간들.

그가 떠나기 여러 해 전, 뜰에서 재미있는 술자리도 마련했었다. 그를 좋아하는 후배들을 불러서 허물없이 지낸 시간이였다.

“와인을 마시며 즐겁게 놀았던 게 가장 남아…….”

부축을 받아야 했던 그의 마지막 시간 어느 날, 내게 했던 말이다. 명예와 부와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구(無垢)한 즐거움이라는 것. 그리고 세배를 드리고 일어난 후배들을 바라보던 그 시선, 저것들이 나 없이도 살아남아야 할 텐데…… 그런 걱정과 연민과 염려가 가득하던 그 시선. 선생님이 가신 뒤에 한 가지 깨달았다. 어린 사람은 어른들에게 잘할 수가 없다고, 자연의 이치란 생각이 든다. 자식이 아버지의 은혜를 갚을 수 없듯이.

글 이경자_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사진 제공 호원숙_수필가



일본 삿포로.

간단한 그리고 간단하지 않은

‘보이콧 재팬’ 운동과 일본 여행의 대안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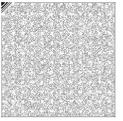
간단하다. 일본 제품을 안 사면 되고 일본 여행을 안 가면 된다. 일본 아베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거부운동으로 맞서고 있다. 일본 자동차, 일본 맥주 그리고 일본산 소비재 등에 불매운동 효과가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고 일본 여행 예약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아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당분간 이런 불매운동과 거부운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간단하지 않은 것이 있다. 이런 불매운동과 거부운동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지에 대한 것이다. 이번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에 의해 그동안 소재 산업과 부품 산업에 소홀했던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게 환기되었다. 불매운동과 거부운동에서도 그런 근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쓰지 않고 가지 않기로 한 지금이 그동안 썼던 이유와 갔던 이유에 대해 곰곰 따져볼 때다.

일본 여행이 증가한 이유

한국인의 일본 여행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본 여행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저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늘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늘어서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총 753만 9,000명으로 전체 일본 방문객의 24.1%에 달한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네 명 중 한 명은 한국인이었다. 반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298만 명에 불과했다.

더 들여다볼 부분은 여행 스타일의 변화다. 패키지여행보다는 자유



여행이 늘고 있다. 패키지여행도 가족이나 친구 등과 그룹으로 가
기보다는 혼자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일본 전문 여행사들의 분석
이다. 다바타 히로시 일본 관광청 장관이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해
여행객 수는 별 영향이 없다. 지켜보겠다”라고 말한 근거는 바로 이
런 한국인의 일본 여행 패턴 변화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일본 여행은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을까? 국
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는 코드를 일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여행 환경을 살펴보자. 일단 여행 인프라
가 잘 갖춰져 있다. 지역의 랜드마크 호텔이나 온천 호텔 등이 인프라
라는 대부분 일본의 버블경제 시기에 만들어졌다. 내국인 관광 시
장이 활성화되어 이 인프라의 소프트웨어도 잘 가동되고 있다. 그
래서 정확한 가성비 혹은 ‘가심비’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저비용
항공사(LCC)가 경쟁적으로 취항하면서 일본 여행은 호황을 맞이
했다.

일본 여행은 크게 도쿄나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등 대도시로 가
는 여행과 조용한 소도시 여행 그리고 산악 트레킹 등 대자연 여행
과 온천 여행 등 휴식 여행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대도시 여행은
쉽게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싱가포르, 홍콩, 타이베이, 하바롭스크
등은 미식 등 대도시 여행의 테마를 두루 구현할 수 있는 곳이다. 대
자연 여행도 마찬가지다. 히말라야, 올란바토르, 바이칼 등 근거리
에 일본 이상의 풍광을 보여주는 곳이 많다. 온천 여행도 캄차카의
노천온천이나 요즘 중국 자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백두산 지
역의 온천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본 소도시를 대체할 만한 여행지들

가장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일본 소도시 여행이다. 일본
소도시는 숙박과 미식 그리고 산책 등에서 상당한 자기완결성을 가
지고 있다. 이런 여행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소도시들을 가까운 국가
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일본 사회가 도달한 어느 지점이고
이를 발견해낸 우리 여행자들의 어느 경지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비용에 이 정도 짧은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으면서 이런 만족감을
주는 곳을 찾기 어렵다.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여행지를 골라 정밀 타격하는 방법이
다. 미군기지 문제 등을 놓고 아베 총리와 강하게 맞선 지사가 있는
오키나와현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인물이 지사가 된 이와테현 등을
뽑을 수 있다. 그리고 야당 추천 인물이 시장이 된 중소도시를 뽑을
수 있다. 조금 궁색한 대안이기는 하지만 이런 곳을 골라 간다면 일
본 정부에 자극이 될 것이다.

여행감독을 자처하고 있어서 일본 여행의 대안 여행지를 추천해달
라는 부탁을 많이 받는다. 그럴 때 추천하는 곳은 울릉도나 흑산도,
매물도 그리고 굴업도나 문갑도 등 덕적군도의 섬이다. 일본 여행
만큼의 ‘여행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풍경과 미식 등 여행의 중요 요
소를 두루 만족시키기 때문이다.(다만 숙박 인프라는 많이 아쉽다.)
이들 섬 중 서해 섬은 가을로 갈수록 더 매력적이다. 석양이 아름답
기 때문이다. 동남아의 석양이 유희라면 이곳의 은은하고 은근한
석양은 파스텔화다.

불매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물어낸
사람들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북한여행 우선권을 이들에게 부여
하면 어떤가 하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마식령 스키장 근처의
원산갈마지구나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지구 그리고 묘향산과 칠보
산 일대의 경관지구는 북한 관광중국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곳
이다. 관광중국에서 만든 북한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이런 곳
을 둘러보는 패키지여행도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여행 상품은 중국 유커(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한다.

다시 말하지만 불매운동은 풀이 과정이지 모범 답안은 아니다. 모
범 답안을 구하려면 일본 여행의 장점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
다. 지방 소멸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일본 소도시 여행의 대체
재를 구하는 일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다. 그래도 찾아야 한다. 이 답
을 찾는 과정이 우리 관광 진흥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글 · 사진 교체열 시새IN 기자

마음의 여백을 새기는 공간

서소문역사공원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한때 서울에 8개의 크고 작은 문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네 개의 큰문을 일컫는 서울성곽 4대문은 옛 수도의 경계를 짐작하게 한다. 그나마 흥인지문(동대문), 돈의문(서대문), 숭례문(남대문), 숙정문(북대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다. 그런 큰문(大門) 사이에 일반인들이 왕래하던 작은 문이 있었다. 4개의 작은 문을 뜻하는 4소문은 홍화문(동북), 광희문(동남), 소덕문(서남), 창의문(서북)으로, 소덕문은 그 위치 때문에 서소문으로 불렸다. 이 문들은 일제강점기 때 헐리거나 근대화로 도시 경계가 확장되면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많지 않고 모습도 없어져 버렸으니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건 당연하다. 그래도 최근 한양도성 복원사업 등이 장소들을 살리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서소문역사공원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또한 사라진 서소문 일대의 특별한 역사적 기억들을 새로운 형식으로 되살리고자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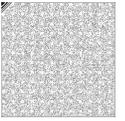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2011년경 일반 근린공원이었던 서소문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지상은 공원(서소문역사공원)이고 지하는 추념공간과 전시장(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등으로 조성되었다. 이 부지는 실제 서소문 자리가 아니라 서소문 바깥 사거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 서소문은 광희문과 함께 상어가 드나드는 문으로 죽음의 관문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더군다나 공원이 있던 장소는 참형이 집행된 조선시대 이름난 사형지였다. 반역 죄인뿐만 아니라 전봉준, 홍경래 같은 의인들과 정약종을 비롯한 조선 후기 실학 사



상가들이 처형당했다. 또한 44명의 순교성인이 배출된 국내 최대 천주교 순교지로도 알려져 있다. 사형장이었던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과일시장으로 사용되다 1973년부터 근린공원으로 활용되었다. 과거의 시린 시간들이 새롭게 문을 연 이곳의 강한 정체성을 형성한다.

서소문역사공원 부지는 경의선과 염천교 등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되어 있다. 서울역과 가까운 교통 요충지에 자리하지만 복잡한 도시 구조 속에 고립되어 있었다. 2011년부터 서울중구청과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4년 현상설계 결과 인터커트+보이드+레스건축 팀의 <EN-CITY_ENGRAVING the PARK>가 당선되었다. 근린공원이 역사공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 적정 규모의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음을 뜻한다. 당선작은 그 제목처럼 땅을 음각한다는 행위에 방점을 두고 기념공간을 지하에 삽입하여 극적인 공간감을 연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당시 건축계에서 호평을 받을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결과, “느슨하고 산만한 기존의 도시조직에서 공원과 역사유적지를 적절히 분리해 두 세계가 성공적으로 만나게 했다”, “전체 공원의 배치와 실내 공간의 크기 등에서 그 유기적인 흐름이 매우 아름다운 호흡을 가지고 있다”는 총평을 받았다.



1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입구.
2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Console)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공공건물

그로부터 5년 후인 2019년 6월, 개관식을 통해 공개된 이곳의 새로운 모습은 많은 문화계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호평의 기저에 깔린 공감대는 이 정도 규모의 양질의 공간적 경험을 예산이 한정된 공공건물에서 본다는 놀라움이었다. 그간 공공건물은 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의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체와의 협조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고, 부족한 예산과 일정 속에서 급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했다. 그 결과 최종 건축물은 계획과는 다르게 여러 상황들이 변경되어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건축뿐만 아니라 실제 기능적으로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도 이와 동반해 같이 훼손되었다. 그에 비해 서소문 역사공원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역설적으로 관이 관행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결과물 같다는 데서 오는 놀라움이 있다. 이런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건축가와 협력 전문가들 그리고 발주처 간 엄청난 조율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곳의 핵심적인 아름다움은 지하에 있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의 무용해 보이는 공간들에 있다. 각 층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비어 있지만 충만한 느낌을 주는 우물 같은 공간들이 자리한다. 서슬 퍼런 이곳의 옛 시간을 짐작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다. 최근 서울의 신축 공공건물 중 이 정도로 충분한 여백을 확보하

여 열린 공간감을 만들어낸 곳은 흔치 않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하라는 조건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서울에는 빈 땅이 거의 없고, 더 높이 더 빨리 용적률을 충분히 확보하여 건물을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간감이란 단순히 벽과 벽을 세운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선의 안배, 적절한 개구부 삽입, 재료의 질감, 빛이 유입되는 방향 등 섬세한 요소들이 함께 모여 공간의 분위기가 결정된다.

‘비움’의 의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이미지는 ‘비움’이다. 비움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현대사회에서 유용하지 않은 감각이다. 그래서 이곳은 아파트와 상가 등 획일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동선은 복잡하고, 공간을 쓸데없이 허전하게 비워뒀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건축에서 잠시 목적 없이 나아가는 소요(逍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램프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지하 3층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레퀴엠이 귀에 감겨온다. 그리고 마침내 당도한 하늘 마당에서 만나는 바깥 풍경은 극적이다. 나는 우리 일상에 이처럼 압도적인 빈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장이든 마당이든 혹은 베란다든, 비워두지 못하는 것은 현대 한국인들의 강박증적 태도다. 아파트의 여백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베란다도 확장하여 거실로 사용하고, 마당과 광장도 늘 각종 이벤트로 채워져 있다. 비어 있음을 두려워하거나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기에 일어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는 서소문 일대의 사회지리적인 역사 기록, 천주교 항쟁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 중이었지만, 내게는 전시 콘텐츠보다 이 텅 빈 공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품처럼 다가왔다. 이 인상을 각자의 마음으로 가져오고 새기는 것은 중요하다. 과거와 지금의 시간을 연결해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적어도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많은 이들을 기념하는 유효한 방법의 시작은 아닐까.

글 정다영 건축과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공간> 기자를 거쳐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전시 기획과 시각문화 연구를 진행하며, 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 겸임교수로 출강 중이다.

사진 제공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부모 있는 고아들을 위한 토닥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좋은 예술가가 되기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도 영 가망 없어 보이던 시절, 노력만 하면 화목한 가정은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노력만 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포기한 사회적 성공과 지위, 그리고 그로 인해 얻지 못한 재력이 가장으로서의 자격 미달 요소가 아닌지 고민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사회적 성공은 반비례한다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다. 그래서 보통의 능력을 가진 남자들은 종종 아빠라는 이름 앞에서 멈춰서게 된다. 이번 생애 아빠는 처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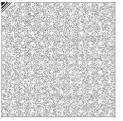


아버지라는 그들

우리는 선뜻 아버지를 말하지 못하는 시절을 겪었다. 아버지는 부재중이거나 등을 돌리고 '가족'이란 이름에 길게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아버지는 터지면 골치 아프지만 푹 떼어버려도 별 상관없고,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그냥 달고 살아도 좋은 맹장 같은 존재가 되어 가족과 사회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2005년 부모 없이 남겨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아무도 모른다〉 이후 2011년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에서는 이혼한 부모의 재결합을 바라는 아이들의 간절한 심정을 말했다. 그렇게 아이들을 중심으로 가족을 이야기하던 감독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통해 아버지를 말한다.

모든 것이 완벽한 젊은 아버지 료타(후쿠야마 마사하루)는 어느 날 시골 병원에서 연락을 받는다. 6년간 키워온 아이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뒤바뀐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소 혼란 소재일 수도 있지만, 히로카즈 감독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오열과 드잡이 대신, 이 완벽해 보이는 남자 료타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리고 아버지라 불렀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였던 적 없던 남자가 비로소 아버지가 되(어보려 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그 어조는 속삭임처럼 낮고 조용해 더 선명하게 가슴으로 스며든다.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부모라는 죄의식을 벗고

일본 최고의 가수이자 남녀 모두의 사랑을 받는 배우 후쿠야마 마사 하루는 일본인들에게는 완벽한 남자의 전형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그의 캐스팅 자체가 영화의 절반 이상의 의미를 차지한다. 가장 아버지 같지 않은 사람, 완벽하지만 아버지의 역할조차도 정해진 틀에서 원칙을 내세우는 사람, 아들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냉정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절대 밟게 보여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그리는 아버지 료타이기 때문이다.

반면 뒤바뀐 아이의 또 다른 아버지 유다이(릴리 프랭키)는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인다. 시골의 낡은 전기상회의 주인인 그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무능력한 아버의 전형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친구처럼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다. <도쿄 타워>를 쓴 소설가이자, 삽화작가이기도 한 릴리 프랭키는 속물적이지만 밟지 않은, 높고 초라하지만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은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료타 부부와 유다이 부부는 함께 어울려 놀고, 주말 동안 아이들을 바꿔 재우다가 결국 수개월 만에 아이를 맞바꾸기로 결정한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역할을 배워본 적이 없는 료타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에 더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아이들의 마음 따윈 일

지 못한 채 키워온 아이를 훌쩍 떠나보내고, 자신의 생물학적 친자 류세이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한다.

키워준 아버지 유다이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믿는 류세이는 “왜?”라고 묻는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힘 있는, 이 영화의 질문이다. 당신이 나의 생물학적 아버지이든, 키워준 아버지이든 상관없이 왜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 불러야 하는가, 라는 아들들의 질문에 이제 아버지들이 답을 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봄 햇살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강물처럼 여전히 차갑지만 희망적이다.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단 한 번도 가슴으로 아버지를 느껴본 적이 없었던 료타가 비로소 가슴으로 아버지가 되어가는 성장담은 그렇게 호들갑스럽지도 않고, 신파적인 울림도 없이 조용히 가슴속으로 파고든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탈자란 아버지를 채근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시선에 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시대에 부모는 있었으나 고아나 다름없이 살았던 젊은 부모들은 ‘아이의 잘못이 내 탓’이라는 아주 무거운 죄의식을 짊어지게 된다. 히로카즈 감독은 그 근원적 죄의식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토닥토닥 위로받은 느낌이다.

글 최재훈 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서울국제 안무워크숍 서울무용센터

조안 레이턴
#무용 #프랙티스 #공간

크리스티앙 두아르떼
#기록 #전기 #집합체 #지역 #무용역사 #구현

정영두
#시간 #순서 #반복 #본 것과 보지 못한 것

이선아
#솔로춤 #섬세한 감성 #집중과 몰입의 힘

8.11.(월) - 8.17.(토)

대상 (*워크숍 별 상이)
무용예술가와 일반시민

신청방법 (*하단 신청링크 참조)
워크숍 별 구글폼 신청
7월 15일(월) 오픈

참여자 선정 방법 (*워크숍 별 상이)
심사 또는 선착순

주요 프로그램
안무 워크숍 & 시민 대상 워크숍(유료)
아티스트 토크(무료) 등

문의 / 공지 및 신청링크

☎ 02-304-0233

🌐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 예술공간 ▷ 서울무용센터 ▷ 서울국제안무워크숍

서울문화재단

SEOUL
INTERNATIONAL
CHOREOGRAPHY
WORKSHOP



web+ zine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view.sfac.or.kr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webzine.e-stc.or.kr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choomin.sfac.or.kr



당신을 기억하는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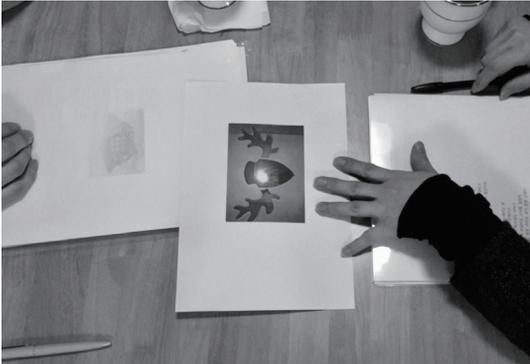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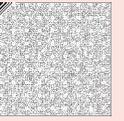
〈두 개의 목소리〉



누군가의 죽음을 어떻게 애도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미선과 정윤은 죽은 동생과 친구에 대해 대화를 하고 기록합니다. 처음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지속하면서 이 대화는 둘에게 하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선과 정윤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전제로, 산 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난 이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 맺으며 살아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_〈두 개의 목소리〉 포스터와 소개 글 부분(웹진 [비유] 제공)

두 사람이 작은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또 다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인다. 커피의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둘은 고요한 얼굴로 침묵을 지키기도 한다. 깨지기 쉬운 유리공을 주고받듯이 대화는 이어진다. 옆 테이블에 당신이 앉아 있다면, 잔잔한 물결처럼 들려오는 목소리에 당신의 귀를 가만히 맡겨둘지도 모른다.

여기 그런 목소리를 가진 두 사람이 있다. 정윤은 영상을 만들고, 미선은 그림을 그린다. 둘은 4년 전 한 워크숍에서 만난 사이로, 산책하듯 느릿느릿하지만 멈춤 없이 대화를 해왔다. 두 사람에게서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갑자기 톱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었다. 도저히 목구멍을 넘기지 못하는 말, 보통의 장소에서는 절대로 담기지 않는 말, 누구에게도 가닿지 않는 말. 〈두 개의 목소리〉 프로젝트는 미선과 정윤,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조각이다. 그 조각이 조금은 아프되 특별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누군가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작업이자 기록이기 때문이다. 미선은 동생 현숙을, 정윤은 친구 문희를 떠나보냈다. 미선은 동생이 스스로 생을 마친 후로, 정윤은 친구가 테러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후로 하루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한다. 둘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죽은 동생과 친구가 남긴 사진이나 글을 꺼내어 보기도 하고, 그들의 죽음에 관해 떠오른 생각과 기억을 시, 그림, 영상 등으로 풀어낸다.



죽은 이가 남기고 간 짧은 사물(사진)을 들여다본다. 그가 붙잡아두고 싶었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그에 대한 기억을 붙잡기 위해 그와 함께 나누었던 시간의 조각들을 모아본다.
_4화 '기록' 부분



미선의 그림 <간직>. 미선은 현숙과 함께했던 기억들을 떠올려본다. 현숙과 함께 있으면 울다가도 장난치며 다시 웃을 수 있었다.
_5화 '남겨진 말들' 부분



미선과 정윤은 죽음을 주제로 전시회 <나는 당신을 만나지 않았어요>를 열었다. 시, 그림, 영상 등 작업 전시뿐 아니라 관람객 참여 공간인 '부고 쓰기'를 마련했다. 관람객들은 어떤 말들을 남겼을까?
_7화 '다가오는 목소리' 부분

미선과 정윤은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남겨두고 간 말과 기억을 오랫동안 각자 지니고 있었다. 혼자서는 열여섯 불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둘은 마침내 <두 개의 목소리>에서 마주앉아 먼지를 후후 불어본다. 그 과정이 쉬울 리 없다. 정윤은 연재 마지막 화에 와서야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사실인지, 혹여 내가 잘못 알고 설명하면 나의 친구와 그 가족에게 누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화를 찾아간 테러 사건 기사를 힘들게 다시 찾아봤어요. 뉴스 기사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만을 연결하여 연대기를 세 줄 적었어요. 그리고 든 생각은, ‘단 세 줄로 어떻게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을까?’였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둑어둑해진 숲속을 더듬거리며 걸어가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두 사람이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 대화하고 작업하고 기록해나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그 끝에 무엇을 만났을까. 죽음을 말할수록, 죽은 이에 대해 말할수록 선명해지는 건 삶이고, 자신이었다고 두 사람은 말한다. 실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들의 목소리가 항상 어둑거나 무겁지만은 않다. <두 개의 목소리>를 읽어나가면서 또렷해지는 건 이를테면 이런 바람이다. 누구라도 용기를 내어 죽음과 고통과 슬픔을 공적인 자리로 드러내고 함께 애도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정윤과 미선의 대화는 또 하나의 목소리로, 빛으로 당신에게 닿을 것이다.

글 남지은_시인, [비유] 편집

하우스 어셔와 유니폼

치마에서 바지로

흰색 블라우스에 신체 라인에 꼭 맞는 어두운색 치마, 커피색 스타킹— 혹은 계절에 따라 검은색 스타킹, 굵이 낮은 검은색 구두, 하나로 묶은 머리에 리본 핀 머리망까지. 색상이나 디자인에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직 여성 노동자가 착용하는 포멀한 정장형 유니폼의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보다 화려한 색상과 엄격한 의복 규정이 있는 승무원 유니폼도 같은 스펙트럼을 공유하며, 불과 2~3년 전까지 CGV 영화관 직원들도 이와 같은 유니폼을 착용했다. 그리고 이는 하우스 어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CGV는 젊은 세대의 니즈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유니폼을 점프슈트형으로 교체했고, 이례적으로 진에어 항공사 승무원들은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공연계의 경우에도 국립극단 서계동(백성희장민호극장·소극장 판)이나 두산아트센터, 그리고 삼일로창고극장이나 대학로의 소극장들에서는 하우스 어셔가 후드 집업, PK티셔츠, 청바지와 같은 편안한 유니폼을 착용한다. 반면, 남산예술센터를 비롯하여 국립극장, 명동예술극장, 예술의전당, 아르코예술극장 등의 공공극장이나 LG아트센터, 블루스퀘어 등 공공극장은 아니지만 공연장 규모가 큰 극장들은 여전히 정장형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 극장이 표방하고 있는 가치가 다른 것에서 오는 차이도 있다. 편안한 유니폼을 착용하는 극장이 '젊음', '실험', '친근함' 등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정장형 유니폼을 착용하는 극장은 '격식', '신뢰', '단정함' 등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하우스 어셔는 관객을 면대면으로 만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착용하는 유니폼은 각 단계가 표방하는 가치를 시각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니폼은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하우스 어셔가 실제로 수행하게 되는 업무를 세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시각에서 유니폼을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정장형 유니폼의 경우, 여성 어셔가 치마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이 얼마나 착오적인 일인지 알 수 있게 한다. 객석 근무의 경우에는 관객들



출처: 아트코 · 대원로예술극장, 하우스 어셔의 인터뷰 영상 www.youtube.com/watch?v=OmH3L_z6sY



을 자리로 안내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이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며, 로비 근무의 경우에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다. 즉 치마 유니폼은 하우스 어서의 신속함과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업무 효율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남산예술센터의 경우, 치마폭이 좁은 탓에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게처럼 옆으로 내려가야 하는 일이 빈번했고, 지연입장 시 관객들에게 라이트 볼빛을 비춰주기 위해 쭈그려 앉아야 할 때마다 자세 잡기가 쉽지 않았다. 또 자리를 안내받아야 할 관객이 “내가 내려갈 테니 내려오지 말라”고 우리를 배려하는 경우도 있었고, 직접적으로 여성 어서들이 딱 달라붙는 치마를 입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관객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극장에서 치마 유니폼이 유지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한 하우스 어서의 경험담에 따르면, “왜 남성 안내원들은 바지를 입는데 여성은 치마를 입느냐”라고 극장에 물어봤을 때, “사회적 인식 때문에 아직은 바꾸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¹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라는 이분법이 이상하지 않던 시대에는 이러한 유니폼 형태가 매우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도 분명,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불편함과 위험을 감내하고 있었을 것이다.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요즘, 여성 노동자들이 ‘단정함’과 ‘격식’을 위해 꼭 치마를 입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한다. 이미지라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업무보다 상위에 있는가?

남산예술센터는 작년에 여성 어서의 유니폼을 바지로 교체했다. 남산예술센터가 첫 사례도 아니고 그저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공연계—넓게는 우리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변화의 바람에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바지 유니폼을 착용하는 여성 어서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무엇보다 개인의 편리함을 넘어서, 실질적인 업무에도 매우 효율적이다.

최근 아르코예술극장에서도 여성 어서가 바지 유니폼을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관객으로 찾은 극장에서, 나와 동일한 일을 하는 여성 어서가 바지를 입은 모습을 보니 묘하게 기쁜 마음이 들었다. 아직 치마 유니폼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여성 어서들이 많다. 물론 모든 극장이 단기간에 유니폼을 교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산을 비롯하여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이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함께 노동하고 있는 하우스 어서들의 영역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본다.

글 윤소희_2016년부터 남산예술센터에서 하우스 어서로 근무하고 있다. 2018년부터 삼일로창고극장에서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 www.facebook.com/sohee.youn.52

1 더관객, <더—관객 #2018 #연극 #관객 #기록>, 서울연극센터, 2018, 156쪽.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각자의 스타일로 꿈틀거립니다

살아 있음에 가슴이 뛰는, 발레리노 김용걸



웹진 [춤:in]

1. 당신은 누구십니까?

평범한 저에게 이런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당신을 궁금해하며, 마음속 무언가가 살아 꿈틀거림을 느끼는 하나의 생물입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발레를 해온 덕분에 많은 걸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남들처럼 욕심, 질투, 후회와 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가끔은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겸손하게 지내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2. 당신에게 이곳의 의미는?

학교, 집, 학교, 집... 저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반복된 생활에 익숙합니다. 직업 특성상, 단순하고, 자칫 단조로워지기 쉬운 생활은 결국 저의 생각과 상상력에 한계를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이곳에 스스로를 노출시켜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얻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런 세계 이곳엔 우리가 잃고 있을지도 모를 인간성과 인간다움에 대한 감각을 되돌려주지요.

3. 이곳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정지해 있고, 굳어 움직이지 않는 것조차 또 다른 움직임이요, 일종의 살아 있음입니다.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변형과 변주(variation)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거의 날것에 근접한 상태로 생생하게 살아 있으며, 그들의 변주 역시 각자의 스타일로 꿈틀거립니다. 가끔 이런 모습들은 하나의 군무처럼 보여서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발레라는 예술이 가식적으로 느껴져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4. 이곳에서 춤은 어떤 모양인가요?

이곳에는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변주가 존재하므로, 춤의 모양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조합과 변주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주제로 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살아 있기 위한,
살아가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명 그 자체...”

아티스트 소개 김용걸은 성균관대 무용학과 졸업 후 5년간 국립발레단 주역으로 활동했고, 이후 2000년 도블 후 프랑스의 발레 드 오페라 드 파리(Ballet de L'Opera de Paris)에 입단하여 2009년까지 솔리스트로 활동, 이듬해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와 교수로 특채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서울 문화 매뉴얼

SFAC 문화예술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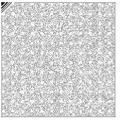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삼일로창고극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시청/삼각산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 SFAC 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TA-D랩(TA Development LAB)>(~8.9) ■ 전시 <InSight OnSite>(~8.5)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로 상상극장 <도채비 방쉬>(~8.8) ■ 전시 <모락모락>(~8.6) ■ 2019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루루섬의 비밀>(~8.25) 	<p>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서울무용센터 레지던시 선정 예술가 Liza, Yehbonne Bien, Edouard Rose 쇼케이스 ■ 2019 칠석공연 <은하수夜> ■ Gospel Music Festival 2019 ■ 뮤지컬 <시티오브엔젤>(~10.20)
<p>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THE 넓은 라운드테이블> ■ 전시 <한글에서 빛과 소리 환상곡>(~8.12) 	<p>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로 상상극장 <무니의 문>(~8.15) 	<p>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삼각산시민청 <삼각산 활력콘서트> ■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국가유공자 초청 음악회 <아리랑 페스티벌> ■ 전시 <12-24>(~8.14)
<p>19</p>	<p>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박형렬 : Unseen Land>(~8.20) ■ 시인 백인경 신작 전시&낭독회 <광시증>(~8.25) 	<p>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선정작 <그들의 사적인 연주회>(~9.9) ■ 2019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2019 라벨라 그랜드 오페라 갈라 콘서트> ■ 뮤지컬 <영웅> 10주년 기념 공연(~8.21) ■ 2019 제25회 참무국제공연예술제(~8.25)
<p>26</p>	<p>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예술지원사업 <소액모کم> 2차 자유발표 ■ 서초문화재단 심산 북카페 콘서트 <도시 한복판에 스며든 국악> ■ 전시 <컬러스>(~8.27) ■ 연극 <오만과 편견>(~10.20) 	<p>28</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부스 콰르텟 <Slavic> ■ 박순호 <Gyeong in 京인京人> - 2019 아르코 파트너(~8.29) ■ 2019 상트 페테르부르크 발레 씨어터 <백조의 호수> 내한공연(~9.1)



THU	FRI	SAT	SUN
<p>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MEET <일상생활비판_나>(~8.31) ■ 삼각산시민청 활력콘서트(~8.31) ■ 전시 <너 방에서 뭐하니>(~8.3)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모든 얼굴에는 비밀이 있다>(~8.2)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기획MCT <빨치산에는 벼 대신 혁명이 자란다.>(~8.4) ■ 연극 <미인도' 위작 논란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제2학예실에서 벌어진 일들>(~8.18) ■ 어린이를 위한 명품 클래식 놀이극 <베토벤의 비밀노트>(~8.18)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데이비드 호크니>(~8.4) ■ 뮤지컬 <엑스칼리버>(~8.4) ■ 2019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댄싱뮤지엄>(~8.4) ■ 2019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8.4) ■ 2019 제10회 현대극페스티벌(~8.4)
<p>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 'Live Show' <무지개 물고기>(~8.8) ■ 아트 아시아(~8.11) ■ 2019 예술의전당 가족오페라 <투란도트>(~8.18) 	<p>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로 상상극장 <두근두근>(~8.11) ■ 토요일은 삼각산청아름다움 <삼각산 대작전 활짝놀이터 놀러왔어>(~8.10) ■ 2019 프로젝트A 아트워크 ■ 2019 썸머클래식 SUMMER CLASSICS(~8.10) ■ 뮤지컬 <블루레인>(~9.15) 	<p>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단×서교예술실험센터> D.I.Y 가구 워크숍 <타닥> ■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서울라이브' 공연 <화분×브루나 - 여름의 밤, 삼바> @ 무대룩 ■ 한마음살림장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흥겨운 가락, 우리 국악 이야기>(~8.17) ■ 뮤지컬 <시라노>(~10.13) 	<p>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서울국제안무워크숍(~8.17) ■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뮤지컬 <그리스>(~8.11) ■ 연극 <어나더 컨트리>(~8.11)
<p>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청 광복절 기념행사 ■ 삼각산시민청 광복절 기념일 행사 ■ <위댄스캠프 쇼케이스: 스윙> ■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19 <예술아지트 : 프린지>(~8.24) 	<p>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로 상상극장 <빨간 열매>(~8.18) ■ 2019 서울청년예술단×금천예술공장 _아트에듀 교육 프로그램 ■ 퍼포논문 <셀프-리서치그래피>(~8.18) ■ 2019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여름방학 특별기획 프로그램 <예술로바캉스>(~8.25) ■ 뮤지컬 <헤드윅>(~11.3) 	<p>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탈 카운터어택> @ 프리즘 홀 ■ <위댄스캠프 쇼케이스: 재즈> ■ 2019 세종문화회관 여름시즌 프로그램 <세종 포레스트>(~8.17) ■ 연극 <월화>(~8.18) ■ 연극 <나에게는 얼굴을 쓰다듬을 손이 없다>(~8.25) 	<p>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IMATION FESTA> ■ 뮤지컬 <각인>(~8.18) ■ 전시 <공주, 글시 덕으시나: 덕은공주 집안 3대 한글 유산>(~8.18) ■ 음악극 <낭랑그생>(~8.18) ■ 연극 <비즈니스 인 퍼>(~8.18)
<p>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MEET <물으로 나온 오리_배> (~8.24) ■ 신당창작아케이드 10주년 기획전시 <Quantum Leap: 비약적 도약> @ 송원아트센터(~9.8) ■ 2019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울구(燭區)>(~9.1) ■ 안녕, 푸展 <Winnie the Pooh : Exploring a Classic>(~2020.1.5) 	<p>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천예술공장 <2019 다빈치 크리에이티브>(~9.11) ■ 퍼포논문 <좁은 몸>(~8.25) ■ 2019 아시아청년관현악단(AYO) 아시아 투어 ■ 뮤지컬 <오, 박씨>(~9.8) 	<p>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서울형 장애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 <춤추는 예술가> ■ 2019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선정작 <그들의 사적인 연주회> (~9.7) ■ 창작 발레 <한여름밤의 호두까기인형>(~8.25) ■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11.17) 	<p>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서울무용센터 해외 안무가 교환 프로그램 - 교토아트센터 교환 안무가 Kitamari 쇼케이스 <말려 교향곡 제2번 '부활'> ■ 2019 하나오페라 뮤직 페스티벌 ■ 전시 <리얼-리얼리티>(~8.25) ■ DDP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 폴 스미스 전시 <HELLO, MY NAME IS PAUL SMITH>(~8.25)
<p>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해주미용실>(~9.8) ■ 전제덕 하모니카 콘서트 <And so it goes> ■ 전시 <On Photography>(~8.29) 	<p>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일로창고극장 대관 공연 <모던걸타임즈>(~9.8) ■ 시민청 작은결혼 페스티벌(~9.1) ■ 청년국악인큐베이팅 사업 <청춘만발 경연무대>(~8.30) ■ 국립현대무용단 <스윙>(~9.1) ■ 연극 <장수상회>(~9.22) 	<p>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MEET <밴드 다크 미러 오브 트래저디 FULL HD 라이브 영상 앨범 상영회> ■ <허클베리핀 × Stage> @ 생기스튜디오 ■ <각자의 섬> @ 망원 벨로주 ■ 토요일은 참이 좋아 ■ 이나현의 렉처퍼포먼스 <안무노트 2019>(~9.1) 	



2019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일상생활비판 나〉

문래창작촌 지역 마을 예술인 자치모임인 '문래마을예술인회의'의 출범을 기념해 연중 진행되는 참여 예술인들의 릴레이 전시. 8월에는 홍지, 박준식, 최라운, 김태일/김정현, 공은주 작가가 참여한다.

일시 8월 1일(목)~31일(토)

장소 상상채굴단(영등포구 도림로 431)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연극 〈미인도〉 위작 논란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제2학예실에서 벌어진 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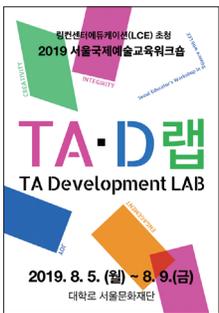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과 강기훈의 김기설 유서 대필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던 1991년을 배경으로 한다.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진짜'에서 '가짜'가 되어가는지 담담하게 살펴본다.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위트 넘치게 보여준다.

일시 8월 3일(토)~18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15일 오후 3·7시)

장소 두산아트센터 Space11

관람료 3만 5천 원

문의 02-543-9790



2019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TA-D랩(TA Development LAB)〉

링컨센터에듀케이션(LCE)의 심미적 예술교육 철학 및 방법을 압축적으로 집약, 발전시킨 교육예술가 전문성 향상 훈련 프로그램 'TA-D랩'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일시 8월 5일(월)~9일(금) 오후 1시 30분 ~6시 30분

장소 대학로 서울문화재단(구 동송아트센터) 2층

수강료 20만 원

문의 02-3290-7427



2019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예술로 상상극장〉

'어린이가 있는 곳 어디나 극장이 된다!'라는 슬로건하에 예술가와 함께 만든 어린이 참여형 공연이다. 〈도채비 방쉬〉, 〈두근두근〉, 〈무니의 문〉, 〈빨간 열매〉 등 네 작품을 선보인다.

일시 8월 6일(화)~18일(일)(월 공연 없음)

〈도채비 방쉬〉 8월 6일(화)~8일(목) 오전 11시, 오후 2시 〈두근두근〉 8월 9일(금)~11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무니의 문〉 8월 13일(화)~15일(목) 오전 11시, 오후 2시 〈빨간 열매〉 8월 16일(금)~18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장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관람료 3천 원

문의 02-871-7414, 7417



2019 칠석공연 〈은하수〉

연인들의 여름 축제 콘서트로 음력 7월 7일인 칠월 칠석의 절기를 되새기고 관련 음악을 젊은 국악인들이 들려준다. 부대 행사로 연꽃잎차 시음, 연서 쓰기 등이 마련된다.

일시 8월 7일(수) 오후 8시

장소 국립국악원 예약당

관람료 A석 1만 원

문의 02-580-3300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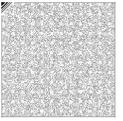
토니 어워즈 6개 부문,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 8개 부문을 석권한 코미디 누아르 뮤지컬. 흑백과 컬러라는 '색'의 대비를 통해 현실과 영화속 시점을 넘나들며 색다른 무대 기술을 선보인다.

일시 8월 7일(수)~10월 20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2시·7시, 일 오후 2시·6시 30분(월 공연 없음, 8월 15일·21일 오후 3시·8시)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문의 1544-1555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 'Live Show'
<무지개 물고기>

욕심꾸러기 어린이가 친구들을 떠나보내고 우연히 멋쟁이 MC가재를 만나 바닷속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흥미로운 이야기. 알록달록 거대한 물방울 별룬 등 신비로운 바닷속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배우와 아이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 되는 참여형 콘서트 뮤지컬이다.

일시 ~8월 8일(목)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토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일 오전 11시, 오후 2시(월 공연 없음)

장소 꿈의숲 아트센터 퍼포먼스홀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1544-3901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

<삼각산 대작전 활짝놀이터 놀러왕!>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즐기며 시원한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여름 체험 축제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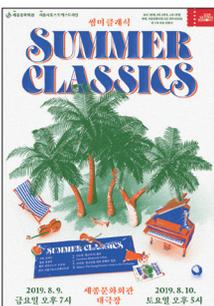
일시 8월 9일(금)~10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관람료 무료(선착순 100명)

문의 02-900-0073, 4300,

http://sg.seoulcitizenshall.kr/es_all



2019 썸머클래식 SUMMER CLASSICS

세종문화회관의 여름을 책임지는 스테디셀러 <썸머클래식>.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음악회를 표방하지만,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를 소개하며 깊이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일시 8월 9일(금)~10일(토)
금 오후 7시, 토 오후 5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문의 02-399-1000



뮤지컬 <블루레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199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변주한 뮤지컬. 친부 살해라는 소재를 통해 '선과 악의 경계는 어디인가?'라는 묵직한 주제를 끊임없는 반전과 미스터리로 흥미롭게 풀어낸다.

일시 8월 9일(금)~9월 15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4시·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7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관람료 R석 5만 5천 원, S석 4만 5천 원

문의 02-399-1000



한마음살림장

수공예 창작물 전시 및 서울 시민 소통장터로, 아트레일러를 통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시 8월 10일(토)

장소 시민청 시민플라자(B1)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5816,

http://seoulcitizen shall.kr/es_all



뮤지컬 <시라노>

프랑스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에드몽 로스탕이 실존 인물 '시라노'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재탄생시킨 희곡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가 원작이다. 유려한 화술과 낭만적인 감성을 지닌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로,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열렬한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 위트와 재치가 넘치는 대사들은 로맨틱하고 감동적인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일시 8월 10일(토)~10월 13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30분,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30분(월 공연 없음)

장소 광림아트센터 BBCH홀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문의 1588-5212



시민청 광복절 기념행사

제74회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 기념 특별공연 (니나노언니들)과 광복절 기념 컬러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시 8월 15일(목) 오후 2시
장소 시민청 활짝라운지(B1)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7331,

http://seoulcitizenshall.kr/es_all



서울FRINGE페스티벌2019

<예술아지트 : 프린지>

매해 장소특정적 주제를 선정하여 축제를 펼치는 프린지는 올해 '예술아지트 : 프린지'로 꾸며진다. 연극, 무용, 전통, 음악, 거리예술, 독립영화에 이르기까지 총 101팀, 1,500여 명의 독립예술가들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일시 8월 15일(목)~24일(토) 평일 오후 4시~10시, 주말 오후 3시~10시
장소 문화비축기지
관람료 1일권 3만 원
문의 02-325-8150,
www.seoulfringefestival.net



삼일로창고극장 기획공연 <퍼포논문>

<퍼포논문>은 연극 관련 졸업논문에서 주목한 삼일로창고극장 기획 프로그램이다. 논문 저자들에게 논문을 수행할 수 있는 무대를 제안, 연극을 이론화한 텍스트를 다시 무대화한다. 2019 <퍼포논문>은 연극학 논문의 생산과정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셀프-리서치그래피>(저자/연출 이지혜)와 여성으로의 몸에 대한 훈육이 그 심신을 어떻게 바꾸어내는지 들여다보는 <좁은 몸>(저자/연출 황은후)을 선보인다.

일시 <셀프-리서치그래피> 8월 16일(금)~18일(일) 금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좁은 몸> 8월 23일(금)~25일(일) 금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758-2130, www.nsac.or.kr



전시 <공주, 글씨 먹으시니: 덕온공주 집안 3대 한글 유산>

개관 5주년을 맞이한 국립한글박물관은 2019년 첫 번째 기획특별전으로 조선의 마지막 공주 덕온과 아들, 손녀 3대가 쓴 한글 자료와 생활 자료 200여 점을 한 곳에서 보여주는 전시를 마련했다. 덕온공주와 아들 윤용구, 손녀 윤백영 3대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한글을 통해서 마음을 주고받았다. 따뜻한 가족 사랑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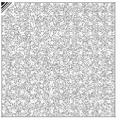
일시 ~8월 18일(일) 월~금 : 일 ·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 · 문화가 있는날 오전 10시~오후 9시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관람료 무료
문의 02-2124-6200



2019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선정작 <그들의 사적인 연주회>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작곡가들은 뛰어난 예술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닌 음악적 양식을 만들었고, 바로크 시대에 들어서 더 발전된 기악음악과 함께 대중 음악회의 초기 형태가 나타났다. 본 프로젝트는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와 현대의 대중을 이어보고자 한다. 현대의 대중은 현재와 지나간 시대 사이에 놓여 있는 긴 시간 때문에 음악을 어렵게 느끼기도 한다. 한 시대를 반영했던 음악과 악기로 구성된 공간 '연주자의 방'이 사적인 만남을 주선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갖는 소리들은 시대와 시대를 잇는 '사운드 오브제'로 작용한다. 시대와 시대를 연결해 관객과 연주자를 잇고자 하는 기획이며, 한 개인이 예술의 취향 하나를 사적으로 취해가길 바라는 작품이다.

일시 전시_ 8월 21일(수)~9월 9일(월)
 공연_ 8월 24일(토), 8월 31일(토), 9월 7일(토)(총 3회)
장소 스페이스 바움
관람료 무료
문의 010-2322-4016



2019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2019 라벨라 그랜드 오페라 갈라 콘서트〉

한 시대를 풍미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로시니'와 '도니제티', '베르디'와 '푸치니', 그리고 '마스카니'와 '조르다노'의 작품들과 함께 나실린 작곡의 창작 오페라 〈검은리코더〉의 주요 아리아들과 중창, 합창곡들을 국내 최정상 성악가들이 들려준다.

일시 8월 21일(수)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12만 원, S석 8만 원, A석 5만 원, B석 3만 원, C석 1만 원

문의 02-572-6773



2019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물으로 나온 오리_배〉

배우와 예술교육가로 구성된 단체 '넘나들이'에서 제작했다. 환경을 소재로 한 어린이 대상의 체험형 공연이다.

일시 8월 22일(목)~23일(금) 오후 8시, 8월 24일(토) 오후 3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1만 원

문의 02-2676-4332



신당창작아케이드 10주년 기획전시

〈Quantum Leap: 비약적 도약〉

신당창작아케이드 10주년을 기념하여 1기부터 10기까지 모든 작가들의 역량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신당창작아케이드가 그동안 배출한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공예계의 활동 범위가 '비약적인 도약'으로 확장될길 기대한다. 전시는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섹션별로 새로운 전시 디자인을 선보인다.

일시 8월 22일(목)~9월 8일(일) 오전 10시 ~오후 7시(9월 8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송원아트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02-2232-8831~3



2019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울구(爐區)〉

공사대금 지연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인부들과 집주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제55회 동아연극상' 신인 연출상을 수상했다. 장애를 가진 아들 연호를 데리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영원은 이들의 갈등을 중재해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오히려 갖은 오해와 조롱, 멸시를 받을 뿐이다. 영원과 연호는 언제나 함께 가지는 집주인 요석의 편에 서게 되고, 인부들은 커다란 망치를 들고 집을 부수러 찾아온다.

일시 8월 22일(목)~9월 1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월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 아름다운 극장

관람료 3만 원

문의 070-8197-7950(극단 파수꾼)



금천예술공장 〈2019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생명과학과 로봇, 사이보그 등의 기술과 현상에 대하여 예술적 실험을 통한 관점을 제시한다.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작업들의 전시와 로봇공학자, 사이보그 아티스트 등의 강연으로 이루어진 렉처가 진행된다.

일시 8월 23일(금)~9월 11일(수) 페스티벌 나잇_8월 23일(금) 렉처 데이_8월 24일(토)

장소 금천예술공장

관람료 무료

문의 02-807-4800



서초문화재단 심산 북카페 콘서트

〈도시 한복판에 스며든 국악〉

우리음악을 부담 없이 즐기며 관객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창작국악팀 '더미소'가 함께하는 북카페 콘서트다.

일시 8월 27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심산 북카페

관람료 무료

문의 02-3477-2805



연극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의 명작 <오만과 편견>을 원작으로 한다. 각기 다른 21명의 개성 있는 캐릭터를 단 두 명의 배우가 소화하는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다.

일시 8월 27일(화)~10월 20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장소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관람료 R석 5만 5천 원, S석 4만 5천 원, A석 3만 원

문의 02-744-4033



2019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해주미용실>

선천적인 기형을 가진 채 태어난 현주는 친모의 학대로 평생을 작은 미용실 안에 갇혀 살면서도 가족과 이웃에 대한 선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결국 선의를 가장한 악역로 인해 파멸에 이른다. 선과 악의 모호한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일시 8월 29일(목)~9월 8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장소 나온 씨어터

관람료 3만 원

문의 010-5099-8361(다이얼로거)

연극 <모던걸타임즈>

신여성을 직접 만나 취재하고 기록한 구술 텍스트를 무대화함으로써 남성 중심 서사 속에서 추상적으로 그려지는 모던걸이 아닌 시대의 모순과 한계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실제 여성들을 만나고자 한다.

일시 8월 30일(금)~9월 8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월 공연 없음)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758-2107



작은결혼 페스티벌

시민청 작은결혼 캠페인의 확산을 위한 페스티벌이다. 공연과 전시, 체험 등이 진행된다.

-공연: <토요일은 청이 좋아>, 10cm, 윤딴딴

-전시: 시민청 결혼식을 진행한 신랑신부의 준비 과정과 결혼식 사진 전시

-체험: 시민청 결혼식 상담 진행, 공공기관 결혼식장 소개 및 정보 제공, 부케 만들기·웨딩소품 만들기 체험 등

일시 8월 30일(금)~9월 1일(일)

장소 시민청 시민플라자A, B(B1)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7332,

http://seoulcitizenshall.kr/es_all



2019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밴드 다크 미러 오브 트래저디

FULL HD 라이브 영상 앨범 상영회>

한국 유일의 심포닉 블랙메탈 밴드인 다크 미러 오브 트래저디의 FULL HD 라이브 영상 앨범 상영회이다.

일시 8월 31일(토)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이나현의 렉처퍼포먼스 <안무노트 2019>

안무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안무가는 무용수의 몸과 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무용수와의 관계 속에서 안무가의 역할은 어떠한가? 안무는 어떻게 전개되고 마무리되어야 할까? 완성된 작품 뒤에서 일어나는 안무의 과정과 안무가라는 직업을 이야기한다.

일시 8월 31일(토)~9월 1일(일) 오후 3시

장소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6929-4470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NATIONAL REPERTORY SEASON 2019-2020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응녀

2019. 8. 30 - 9. 8 달오름

패왕별희

2019. 11. 9 - 11. 17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아버.방언

2020. 3. 6 - 3. 15 달오름

춘향전(가제)

2020. 5. 14 - 5. 24 달오름

국립무용단

추석·만월

2019. 9. 13 - 9. 15 하늘

회오리

2019. 10. 3 - 10. 5 LG아트센터

설·바람

2020. 1. 24 - 1. 26 하늘

신작

2020. 4. 18 - 4. 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제익

2020. 6. 5 - 6. 7 LG아트센터

국립국악관현악단

3분 관현악

2019. 10. 24 - 10. 25 달오름

격. 格, 한국의 멋

2019. 11. 26 롯데콘서트홀

윈터 콘서트

2019. 12. 19 - 12. 20 하늘

신년 음악회

2020. 1. 16 롯데콘서트홀

합창과 국립국악관현악단(가제)

2020. 3. 26 롯데콘서트홀

어린이음악회 엔통이의 동요나라

2020. 4. 22 - 5. 9 하늘

2020 겨울의 노래던

2020. 6. 17 롯데콘서트홀

국립극장 기획공연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2019. 12. 12 - 2020. 1. 26 달오름

해외초청작 | 플레이어스, 마오II, 이름들

2020. 6. 5 - 6. 6 달오름

해외초청작 | 타오 댄스 시어터 4&9

2020. 6. 12 - 6. 14 달오름

NT Live

리어왕

2019. 9. 19 - 9. 22 / 9. 28 달오름

디 오디언스

2019. 9. 26 - 9. 29 달오름

한 남자와 두 주인

2020. 2. 6 - 2. 9 달오름

리먼 트릴로지

2020. 2. 8 / 2. 12 / 2. 15 / 2. 16 달오름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2020. 2. 13 - 2. 15 / 2. 18 / 2. 19 달오름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9-2020

삼일로창고극장 기획공연

퍼포논문

① 셀프-리서치그래피
2019.
8.16-18

시간 금 19:30
토·일 15:00
저자·연출 이지혜
출연 이지혜

② 좁은 몸
2019.
8.23-25

시간 금 19:30
토·일 15:00
저자·연출 황은후
출연 황은후 김정 강하늘

삼일로창고극장 기획공연

퍼포논문

“논문, 공연이 되다”

2

좁은 몸

저자·연출 황은후 | 출연 황은후 김정 강하늘

8.23-25

1

셀프-리서치그래피

저자·연출 이지혜 | 출연 이지혜

8.16-18



오마
시공간
자판

예술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THE 넓은 라운드 레이블

2019.8.12.(월)

오후 1시 - 9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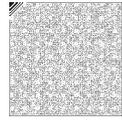
블루스퀘어 카오스홀

*시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QR코드

문의 02)3290-7470, 7471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http://magazine.sfac.or.kr>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7월호 독자 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의견들 보내주시면 좋은 시골을 통해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울 시청 도서관을 방문했다가 꽂혀있는 '문화+서울'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울 곳곳의 예술 공연, 전시 소식과 요즘 예술계 트렌드를 알 수 있어서 유익하네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김형희 대표님의 인터뷰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극장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시다 사고로 장애인이 되셨을 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림으로 이겨내신 게 존경스럽고 장애를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루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개인 호에서 장애, 여성, 퀴어 등 소위 '차별받는 이들'의 예술에 대해 다른 게 좋았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편집부에서 그러한 목소리를 담아주셔서 좋았습니다. 무료 배포임에도 일한 '문화+서울' 항상 응원하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본지는 [문화+서울] 웹진(<http://magazine.sfac.or.kr>)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장지는 주요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엽서

채운주 님(서울시 용산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울시청 도서관을 방문했다가 서가에 꽂혀 있는 [문화+서울]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울 곳곳의 예술 공연, 전시 소식과 요즘 예술계 트렌드를 알 수 있어서 유익하네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김형희 대표님의 인터뷰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무대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시다 사고로 장애인이 되셨을 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림으로 이겨내신 게 존경스럽고 장애를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루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이번 호에서 장애, 여성, 퀴어 등 소위 '차별받는 이들'의 예술에 대해 다른 게 좋았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편집부에서 그러한 목소리를 담아주셔서 좋았습니다. 무료 배포임에도 일한 '문화+서울' 항상 응원하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편집 후기

아빠, 사랑해.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낮 같은 여름밤.

전주호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서울에서만 살았지만, 글로 보는 서울은 참 각별합니다.

박도욱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부대찌개의 유래를 쓴 글을 읽고 저녁 메뉴로 부대찌개를 고르며

150호를 마감합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앙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집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